

“ 天下大將軍 대한화재 ”

여로부터 마을 입구엔 사람들의 역운을 막아주고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뚝 서 있던
커다란 상징물이 있어 마을과
사람들은 늘 어떠한 앞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는 것 보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면 그 일을 대한화재가 하고 싶습니다.
고객 곁에서 안전과 행복을 지켜 드리는 -

믿음직한 사람들 - 대한화재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1-1 TEL: (02) 3455-3114
http://www.daeins.com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해외여행 보험 · 장기저축성 보험
· 암 보험 · 상해 보험 · 화재 보험 · 적하 보험 · 특종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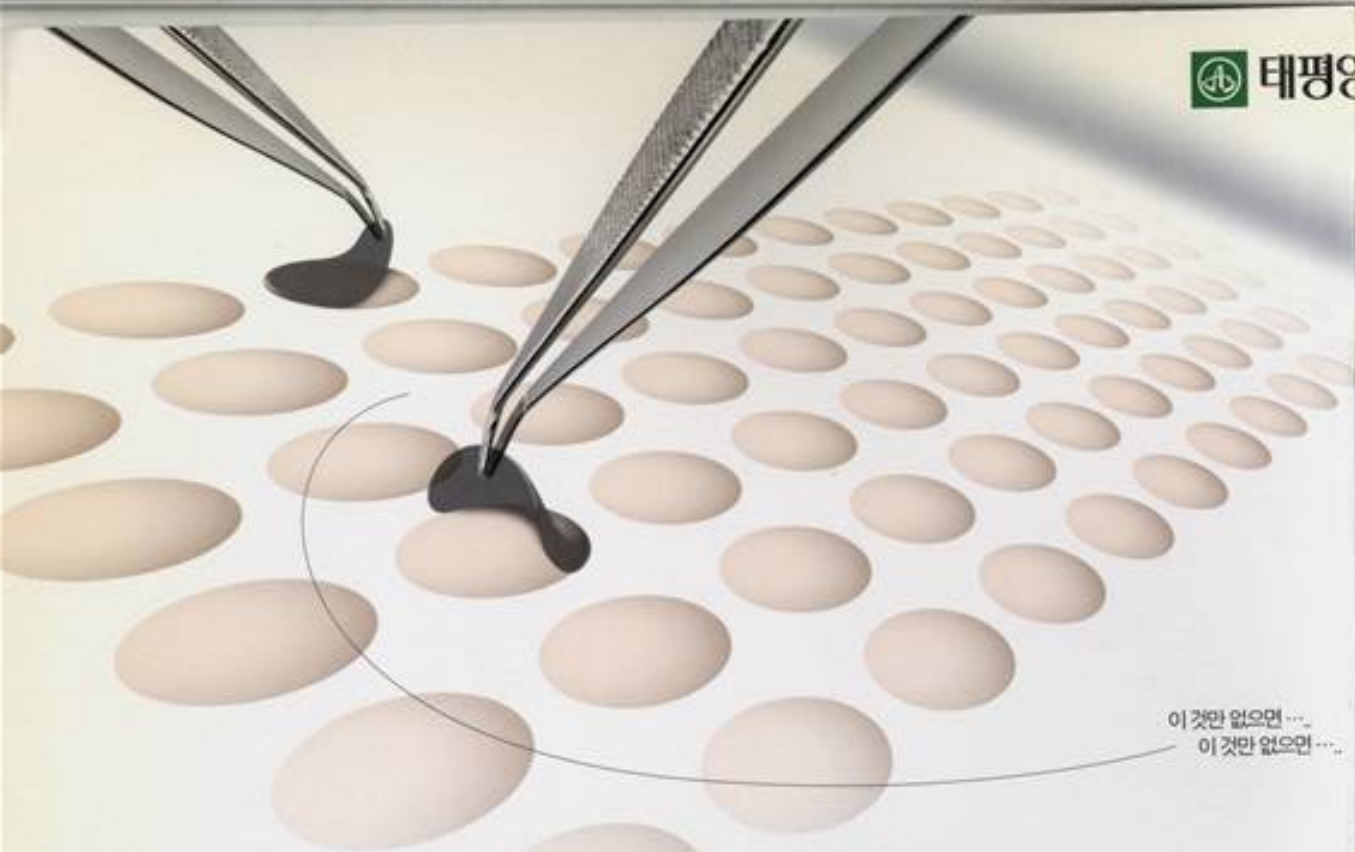
창립 116주년 기념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보

연세 백양:



VOL. 8
2001. 6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점점, 맨 얼굴에 자신이 살아나요! 아이오페 화이트젠 인텐시브

피부 속부터 밀려나오는 투명함 -

꼼꼼하게, 세심하게- 피부 속 그늘을 관리하는 건 기본-
한하게 피부의 빛이 살아납니다. 신 성분, '화이트젠'-
다중 에멀전 구조로 만들어져 피부 깊은 곳까지 맑고 깨끗하게-
피부의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신 성분, '화이트젠'의
아이오페 화이트젠 인텐시브 / 45ml

피부의 꿈 - 아이오페

IOPE

화장품 전문점에서 구입하세요

● 고객상담: 080-023-5454(주선) 02-709-5081~5
● 피부애프터서비스: 080-700-5925

창립 116주년 기념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보

연세 백양



VOL. 8
2001. 6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기도문	강교자	3
인사말	원화숙/5월 연세 숲속에서의 하루	4
총장인사	김우식/ 진정한 연세의 주인이 되어 주기를	6
축하합니다	윤정숙/ 연세 백양 8집 발간을 축하하며	7
	김이학실/ 반갑습니다! 13대 총여학생회입니다.	8
	남경필/ 특유의 자성, 성세함 창의력으로 눈부신 활약 기대	10
백양칼럼	김영환/ 치대생과 장관의 사이에서	12
	김영자/ 사랑하는 여동문 후배들에게	14
동문인터뷰	송장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는 길	17
백양칼럼	홍은희/ 어머니의 선물	18
	송영주/ 공부보다 더 중요한건 리더로서의 경험	20
	변화순/ 가족의 다양성과 자녀의 의미 변화	22
와인칼럼	이인순/ 와인은 오래된 것이 좋다?	24
삶의현장	최현수/ "외교통상부"	26
백양수필	정윤순/ 정년을 지내고	28
	최민수/ 이 나이에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읽는 까닭	31
	이관영/ 노는 재미	34
	차가현/ 치과이야기	36
	윤정미/ 아버지	38
밀레니엄 새로운 도전	손 민/ 변리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40
연세사랑	정행자/ 고위 여성 지도자 과정(T. M. P)을 마치고	42
	현소은/ 연세동산의 선물	44
해외지부	연세대 미중서부 여자동창회 출범	46
시	김종희/ 물 속의 물	47
백양소식	모교소식여자동창회소식동문동정년과대학동창회소식	48
	여성 연구소 소식/임원 및 이사 주소록/	74
	여성언론인/ 여동문 대학교수주소록	

기도문

강 교 자

YWCA 연합회 사무총장
교육 60일

진리의 찬란한 빛이 땅에 비추사
무지와 억압의 땅에 자유를 심으신 주님,

116년의 세월 속에
진리로만 얻을 수 있는 자유함과 이로 인한 생명의
길 배우고 찾아 누린
축복받은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평등과 협력의 혼을 키우고자
조심스럽게 뿌려진 씨앗으로
아름답게 피어선 당신의 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 뜨겁게 섬기고, 기쁨으로
나누어야 할 것들이 많은
복된 책임 지닌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커서 보이지 않고
너무 많아 소중함 잊어
축복과 책임 앞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우리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는
음성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연세의 딸이 되었음이
연세의 딸들로 살아온 우리의 날들과 이름들이
당신으로부터의 축복이요 은총이었습니다.
내 선택이 아닌 당신의 인도하심이요
내 노력과 능력의 결실이 아닌
당신의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이제 조금 철이 든 저희들이
당신 앞에
그리고 이 축복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이 땅의
여성들과, 이 사회와 연세 앞에
큰 빛을 진 심정으로 꿰어 앉습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신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권리가 아닌 빛으로
자랑거리가 아닌 책임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기원합니다.

이 동산의 흙을 파면서
또 씨를 뿌리면서 드러진 기도들과 흘린 눈물들과
바쳐진 희생들이
거름이 되어오늘의우라들이있음을 기억하오니
가정, 사회,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리려는 소원으로 빛을
갠고자 최선을 다하는
연세의 딸들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찬란한 빛과 참 자유함의 씨앗을
우리도 비추고 심어가게 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연세의 딸들, 당신의 딸들이 되게
하소서.

연세백양



VOL. 8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발행인: 이순희
발행처: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전화번호: 365-0631~2
발행일: 2001년 5월 26일
편집위원: 황세경, 이정은, 손정분, 고성민,
기획 및 인쇄: 신성커뮤니케이션(2268-5396)

5월

연세 숲속에서의 하루



천 화숙

여자동창회 부회장
경원대 교수
시학 62집

여자동창회 기금마련을 위해 조출하게 시작했던 총장공관 뜰에서의 불고기 파티 시간이 이제는 여동문의 날로 자리 잡아 우리에게 무척이나 정겨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세동산을 떠난 이후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허둥대며 살다보니 대학 생 때의 동질감이 사라졌고, 서로 다른 곳을 향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5월 어느날 연세동산에 와서야 느낀 감정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임이 없었다면 영원히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뛰다가 끝날지도 모를 우리들의 人生인 것입니다. 참 하느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세동산과 인연을 맺은 우리들은 분명 처음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리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바쁜 생활 속에서 단 하루의 여유도 못 갖는,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동년배, 선·후배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푸른 어느 5월 하늘의 싱그러운 초록빛 숲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때는 여학생이 너무나 적어 머리 한번 킁킁 세우지 못했고 큰 웃음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역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제 연세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또 연세는 무엇보다

“ 혼탁한 세상일수록 하느님의 진리가 더욱 묵마르게 갈구되듯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 우리 자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동문들이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서로 서로 일깨워주고, 또한 끌어주고, 밀어주며 사랑하는 역할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겠습니다. ”

어느 곳에서나 하느님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기에 이 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우리 연세 딸들이 5월 연세동산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다시 만나니 더욱 행복합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연세를 찾겠다는 것이 머뭇거리려졌으나 자주 오다 보니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해주는 연세동산으로 우리 자신이 가꾸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안진의 에세이 “芝蘭之交를 꿈꾸며”에서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흥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

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갈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건과 일 속에도 연세동산에서 따뜻한 친구들과 만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혼탁한 세상일수록 하느님의 진리가 더욱 묵마르게 갈구되듯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 우리 자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동문들이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서로 서로 일깨워주고, 또한 끌어주고, 밀어주며 사랑하는 역할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천화숙**



김우식
연세대학교 총장

진정한 연세의 주인이 되어 주기를

여 동문들의 소식지인 "연세 백양" 8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세대학교는 현재 한국의 여고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남녀공학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여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지금 우수한 여동문들이 사회 각 층에서 자신의 몫을 훌륭히 담당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여년전 연세의 선구 여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여자동창회를 만들어 친목 도모와 능력 개발 및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점을 감사 드리며, 오늘 여자동창회가 4만여 여동문들의 대표 기구로 자리매김 하는 발전을 이룬 것은 큰 성과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연세대학교 여자졸업생의 현재의 위치가 우리 모교 발전에 거대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여자졸업생들의 발전이 우리 대학교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여학생들

을 최대한 자원화해서 연세의 힘으로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교는 세계화, 정보화, 특성화라는 기본 축을 중심으로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세가 세계의 연세가 될 수 있도록 20여만 동문 모두 뜨거운 의식을 갖고 모교발전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뚜렷한 연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연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동창회가 나날이 발전되고, 여자졸업생 각각에게는 큰 결집의 한마당이 되며, 모교와 재학생 후배들에게는 큰 버팀목으로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연세대학이 온총의 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광의 땅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김우식**



윤정숙
여학생회장
주성환 68집

연세 백양 8집 발간을 축하하며

눈 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에 연세 여동문의 날이 개최되며 또 연세 여자동창회 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모교를 떠나 있는 여동문들이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연세캠퍼스에 있음을 보면서 이 마음들이 모여 연세의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여자동창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연세여성의 지력을 보았으며, 또 앞으로 여동문이 될 우리 연세 여학생들에게도 큰 기대를 해 봅니다. 늘 모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실천해가는 여동문들이야말로 기독교정신의 연세교육의 열매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의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여학생처에서도 각 분야의 여성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세 여학생들의 교육과 훈련

에 힘을 예정입니다. 이미 우수한 자질을 인정받고 있는 연세 여동문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모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세 여자동창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여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김민정**

김이학실

13대 총여학생회장
신문방송 98집

반갑습니다! 13대 총여학생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별 수 있/다!' 일까 궁금증을 가지는 선배님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여자라 별 수 있지' 혹은 '여자가 별 수 있겠어?' 하는 체념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별 수 있는, 여학우들도 즐겁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별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올해 총여학생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여학우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으로서 학교에 다니면서 겪었던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라는 공간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여학우와 남학우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학우들과의 소통통

로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학내에서 성교육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몸과 서로의 성에 대해 알고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폭력들을 없애나가고 성에 대한 올바른 담론들을 캠퍼스 내에서 형성해 나가고자 기획된 행사였고 많은 학우들과 함께 즐겁게 진행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우리 나라 최초의 남녀공학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녀 공학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여선배님들이 사회 곳곳의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여학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여자동문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친구'라는 영화가 장안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자들간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

여자동창회가 우리 연세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여동문들을 위해 애써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여학우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 주시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는데요.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여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남자들 간의 우정입니다. 연줄이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간의 네트워크는 실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여성들의 경우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연줄 문화와 사회적 편견들이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1세기는 3F(Female, Feeling, Fiction)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세계적인 컨설팅전문회사 맥킨지는 '우먼코리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고학력 20~30대 여성 인력의 사장을 방치한다면 산업구조의 대전환기에 인력공급의 부족으로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여학우들의 사회진출은 남학우들에 비해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

며, 수치상으로도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OECD회원국 중 꼴찌(54%)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이 때에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공간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여성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이 여성을 키워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자동창회가 우리 연세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여동문들을 위해 애써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여학우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 주시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말

‘축말간’

나일성 천문관

Tel. (054)654-4977



남경필

국회의원/한나라당
사회복지 84인

특유의 지성, 섬세함, 창의력으로 눈부신 활약 기대

안녕하십니까? 여동문 여러분, 지면을 통해서나마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88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5대에 이어 16대에 수원 팔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남경필입니다.

얼마전 일 때문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양로를 따라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공부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만해도 여학생의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 가까이 위치해 있던 연대-이대 커플이 많았고 저도 이화여대생과 연애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학교에서 C·C(캠퍼스 커플)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여학생의 입학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교수님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연세대의 여

학생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우수한 여학생들이 우리학교에 많이 진학하는구나하며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였는데, 함께 하였던 교수님께서 "전체 학생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여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여학생의 수만큼 우리학교의 교세가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 여학생들은 사회진출 보다는 가정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 진출하는 동문수가 줄어드는 - 걱정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교수님의 걱정이 한낱 기우였음을 알게됩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자'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요즘 여동문들의 눈부신 활동상들을 데스크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체코, 루마니아, 벨기에, 폴란드 등과 함께 여성의 관리직 점유율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성 동문 여러분!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 경제시대로 전환되는 요즘 여성의 역할은 기존 경제 시장에 단순 참여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에서 그 기여도가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의 섬세함, 왕성한 지성, 그리고 진리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연세인으로서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 떨어진 나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국회의원, 고위공직, 기업의 고위간부 등 3개 부문은 조사대상 2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동문들은 이러한 사회 현실에도 불구하고 3.6%에 불과한 여성벤처 최고경영자 중 상당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맡고있는 문화부에서도(언론·종무·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부문) 여동문들의 왕성한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화산업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능력있고 진취적인 여성인력의 유입으로 가능했습니다. 영화 분야는 요즘 '남성 역차별'이라는 우스개소리가 회자될 정도입니다.

요즘은 공무원채용시험에서도 여성채용비율을 20%로 높이는 한편 정치권에서도 많은 유능한 여성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성 동문 여러분!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 경제시대로 전환되는 요즘 여성의 역할은 기존 경제 시장에 단순 참여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에서 그 기여도가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지

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의 섬세함, 왕성한 지성,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연세인으로서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고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1위로 연세대가 뽑힌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이 우리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도 모교의 자유로운 교풍을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낼 수 있었던 여동문 선배들의 활동의 결과라 믿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미력이나마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련된 법안의 입법화와 여성의 문제가 여성對남성이라는 性的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잠재력이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성숙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의 활동이 여동문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학교발전과 여성의 권익향상에 뜻깊은 기여를 해나갈 것을 기대하며 내내 성취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남경필**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
치의학 73집

치대생과 장관의 사이에서

- 나의 현재와 미래는 연세에서 키운 꿈과 경험의 산물

“내가 대학에 들어간 것이 1973년이니까 벌써 햇수로 25년이 넘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일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다.(중략) 축제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여대 앞 커피숍을 배회하던 일, 여름방학 때 15박 16일 동안 한계령에서 대관령까지 태백산맥을 종주하던 일, 겨울방학 때 못 읽은 책을 싸 들고 절에 가서 마치 고시라도 보는 사람처럼 열심히 책을 읽던 일——, 지금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 흘러 가는 대학 시절 그 소중한 시간을 붙잡아 두기 위한 노력이었으리라. 그러나 그때 나에게 닥쳐온 충격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렬한 것은 소위 ‘민청학련사건’이었다.(중략) 결국 나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대학 시절의 경험과 꿈에 인도되고, 그때 세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만 능력 부족과 게으름으로 그 도달이 늦추어지고 있을 뿐이다.(중략) 나에게서 삶의 건강함을 재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 그것은 ‘창조적 고통과 창조적 긴장’이라는 기준이다.”

1988년 15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연이은 삶의 역정을 지내다가 초선의 국회의원 시절에 발간한 수필집 『홀로 선 당신이 아름답습니다』의 ‘나의 대학시절’에서 발췌한 몇 구절이다.

나를 따라 다니는 인물평에 빠지지 않는 표현은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치대생과 학생운동, 제적과 투옥, 노동운동과 6개의 기사자격증, 치과의사와 벤처기업가, 시인이자 수필가, 국회의원과 과학기술부 장관——, 젊은 시절에 장관이 되어서 인지 이제 장관을 그만

두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미래의 새로운(?) 직업 역시 대학 시절의 경험과 꿈에 의하여 인도되리라 믿는다. 15년만의 졸업이니 물리적으로는 남들의 4배 기간동안 대학을 다닌 셈이 아닌가.

내가 세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돈과 재산이 아니라 시를 쓰는 상상력이다. 상상력이야말로 우리들의 창조의 밑바탕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양한 경력 속에서도 남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일에 대한 욕심과 뛰는 생각이 아닐까 한다. 나는 정치가 시보다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정치, 감동의 정치를 실험하고 있다.

얼마 전 과기부 장관이 되어 이화여자대학을 방문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급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

다. 그 자리에서 나는 현재 6%대인 교수, 출연연구소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을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로 제고하겠다고 하였다. 여성만을 지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이라는 커다란 방향 속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의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음날 주요 일간지들은 ‘여성인력채용 목표제 20%’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충청도 두메산골의 한 치대생이 젊은 장관이 되어 연세 여자동창회의 초대의 글에 여성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소개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이 역시 시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정치의 한 대목이 아닌가하고 생각해 본다.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영환**

내가 세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돈과 재산이 아니라 시를 쓰는 상상력이다. 상상력이야말로 우리들의 창조의 밑바탕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양한 경력 속에서도 남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일에 대한 욕심과 뛰는 생각이 아닐까 한다.





김영자

전 간호대학 동창회장
간호대 50집

사랑하는 여동문 후배들에게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했던가!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속에서 다시는 싹트지 못할 것 같던 앙상한 나무들과 메마른 대지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온 산야는 울긋불긋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과 연푸른 색으로 새옷을 갈아 입은 수목들이, 요즈음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이제 막 육순을 넘긴 아직은 인생의 황혼이고 싶지 않은, 하지만 지는 해 편에서 있게 되니, 새삼 사랑하는 우리 연세여동문 후배들에게 대단치는 않으나,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은 아닌, 내 살아온 과거를 조명해 봄으로써 보다 의미있고 보람된 인생행로를 걸어가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지면에 간추려 적어본다.

나는 1963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곧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을 했으나 채 1년이 못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마침 남편은 8남매의 장남으로 시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 시누이, 시동생 4명이 모두 학교(중학1년, 중학3년, 대학1년, 대학3년)에 재학 중이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며 내 아이 셋을 낳아 기르게 되니 대가족의 전업주부로서 10년의 세월이 그야말로 눈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잠재된 내적욕구,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가던 해 1974년에 36세의 나이로 다시 세브란스에 취업을 하게되어 집 밖의 일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뜻밖의 변화에 남편을 비롯하여 시대, 아이들까지 한동안 생활의 리듬이 바뀌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2년 뒤 다시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낮에는 가정과 직장에서, 밤에는 학업을 계속하는 주경야독을 하는 고달픈 생활과 여러가지 일을 감행해야 하는 역할(직장인, 학생, 아내, 어머니, 며느리, 주부) 갈등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연희지역 보건관리소 부소장, 정형외과 병동 수간호사, 실무교육실 간호과장, 내과병동 간호과장, 재활병원 개원 간호과장, 응급실 간호과장, 간호부 교육차장에 이어 마침내 1,500여 명의 간호부 직원을 관리하는 간호부 최고 보직인 간호부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10년 늦게 시작한 직장생활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고 고속 승진하게 됨은 말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뿌린 만큼 거둔다는 진리를 일깨워 준 큰 보답이었다. 그동안 가정생활에 100점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직장생활에서 50점 만점, 가정생활에서

50점 만점을 받도록 철저하게 일에 파묻혀 숨차게 달려온 생활이었다.

간호부장으로 재직 중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2년간의 직장을 "아듀"하며 굳이 명예 퇴직을 선택한 것은 너무 바쁜 일상 생활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나 자신의 내적 풍요로움을 위한 재충전을 하면서 출가를 앞둔 자녀들,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삶으로의 회귀였으리라. 그러나 1년여 뒤 (사) 대한간호협회 연수원을 운영 관리하게 되었을 때 모교와 병원에서의 훈련된 관리자, 지도자로서의 배움이 나 자신은 물론 모교의 크나큰 영광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병원에서의 업무 경험은 물론, 1977년부터 간호대학 동창회 임원으로서는 회계, 총무, 부회장, 회장을 거치는 20여년 동안 시간, 돈, 열정(Energy)을 쏟아 동창회를 이끌어 온 것이 내 삶의 큰 보람이요, 나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최고
전당인 연세대학을 졸업한
우리 여자동문들은 한국의
최우수 여성들이며 엘리트들
임을 생각할 때 최고의 지성
과 능력을 갖춘 후배 동문들
께서는 이 시대적 배경을 최
대로 활용하여 자신과 모교
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
하기를 기대해 본다.

축발간



지구표태인트

Tel. (031)428-2800 Fax. (031)864-3031
<http://www.hjci.co.kr>

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누가 1:9-10)" 들어켜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오로지 전업주부로서 머무르게만 하지않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를 인정받고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지금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 혁명의 21세기를 맞았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는 3F 시대, 즉 Female(여성), Fiction(가상, 창조성), Feeling(감성)으로서 풍부한 상상력과 섬세한 감성, 유연한 사고방식을 소유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최고 전당인 연세대학을 졸업한 우리 여동문들은 한국의 최우수 여성들이며 엘리트들임을 생각할 때 최고의 지성과 능력을 갖춘 후배 동문들께서는 이 시대적 배경을 최대로 활용하여 자신과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 모교가

배출한 총 여동문수는 45,000여 명으로 전체의 20%, 현 여학생수는 6,500여 명으로 전체의 27% 임을 감안할 때 우리 여동문들이 모교 발전의 큰 기동임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 그 어려웠던 가정, 사회 환경에서도 내 전공을 살려 사회 활동을 하며, 무언가 이루고자 매진하였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하였고 보람있었으며 만일 그 당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안이한 생활에 주저 앉았었다면 너무나 허망하고 후회하는 생을 안타까워 했으리라. 이제 앞으로의 삶은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모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진료상담과 안내를 하는 자원 봉사자로서 또 새로운 보람을 찾 고자 한다.

내 모교 연세대학과 의료원이여 영원하라! **김세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는 길



송 정 미

CCM가수/송실대교수
성악 88집

요즘 우리는 슬한 종류의 음악을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 다양한 음악 속에는 소음으로 느껴지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이 있다. 바로 CCM, 즉 현대 기독교 음악을 통해 우리의 지치고 매마른 마음에 단비를 주고 음지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송정미 동문은 CCM을 말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예술의 전당에서 가진 개인 콘서트는 매진행렬이 계속되었고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간 관객들의 성화에 한달 후 열린 세종문화회관 무대와 LG아트센터공연까지 열기가 식을 줄 몰랐다. 그리고 그녀의 5장의 앨범은 10년이 지나도록 사랑받고 있다.

그녀의 어릴 적 꿈은 해외음악선교사였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일은 그녀에게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성대결절로 노래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절망과 슬픔 속에서 만든 곡이 그녀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축복송'이었다. 91년 데뷔앨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라이브 앨범과 4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4집 앨범 'Here & Now'에는 낙태반대 운동이나 북한난민 돕기 등 사회참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 그녀가 이렇게 CCM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답한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기에 그 씨가 다 자라 열매가 열렸을 때 거두는 사람이 있듯이 저보다 먼저 씨를 뿌린 분들이 있기에 제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부를 때 자신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서로 하나되고 화해되길 바라며 노래한다. 그녀는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자신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한다는 확신을 가진다. 자신의 목소리는 비록 작지만 오병이 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치유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노래를 통로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길 기도한다.

그녀는 현재 송실대 교회음악과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CBS-FM에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바쁜 가운데 부흥 전국 투어, 6월의 지방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복음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기도한다는 그녀는, 우리 동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모교의 무대에 서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길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김세영**

고성민 (한국어학당 강사/전문 88 집 동문 인터뷰



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문방송 74집

어머니의 선물

서울 남산 제 3호 터널 가까이 남산으로 향한 작은 길목엔 '조선 박물관 입구'라 쓰인 팻말이 서 있다. 팻말을 따라 1백m쯤 가다 보면 섬유박물관이라는 부제를 단 박물관이 나타난다. 1999년 봄 문을 연 이 곳은 쓰고 남은 자투리 천을 이리저리 모양을 살려 생활용품을 만든 퀼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하나같이 색채 배합이 기하학적인 배치로 뛰어나다.

어느 것 하나 탄성을 자아내지 않는 작품이 없지만 특히 나의 시선을 잡아 끈 것은 입구 쪽에 걸린 침대보였다. 20세기 초반 미국 여성이 만들었다는 이 침대보는 여러 개의 원이 연결된 '웨딩링'이라는 독특한 모티브가 전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원 하나마다 10개는 족히 넘는 작은 천 조각들이 하얀 바탕 천 위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는데도 무늬나 색채가 같은 것은 신기하게도 단 하나도 없었다. 그 까닭을 궁금해 하자 김순희 조선박물관장은 "결혼하는 딸에게 어머니가 만들어 준 침대보"라면서 "남은 천 조각들은 그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때까지 입고 자랐던 옷들로 이어 만든 것"이라고 들려줬다.

작아졌거나 해진 옷들을 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둔 정성도 놀랍지만 한 조각 한 조각을 이어 붙이며 그 옷가지마다 들어 있을 추억을 회기 해진 기억의 저편에서 퍼 올렸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새 옷을 사 입혔을 때 기뻐하던 딸, 넘어서 구멍이 난 옷을 입고 울면서 들어오던 딸, 부쩍부쩍 자라는 딸에게 매번 새 옷을 사줄 형편이 못 돼 작아진 옷을 입히면 소매길이를 잡아 늘리느라 징징대던 딸... 한 땀

한 땀 조각을 이어가던 어머니의 뇌리에 지나간 생활사가 교차되며 때론 행복한 미소를, 때론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을지 모른다.

아마도 신혼 첫날 밤, 어머니가 마련해준 이 침대보를 덮고 자려던 딸은 이내 그 조각들이 자신의 때 묻은 옷가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을 절감하며 미래에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자신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했을 것이다.

31년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1999년 9월7일 조국을 찾은 일본의 최장기 무기수 재일교포 권희로씨가 받은 어머니의 선물도 심금을 울린다. 1968년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시미즈(清水)시 클럽밍크스에서 야쿠자가 빌려 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조센징, 더러운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퍼붓는데 격분, 이들을 업종으로 살해한 후 인근 후지미야 여관 숙박객을 인질로 잡고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외치다가 붙잡혔던 권희로씨. 재일교포들의 일본 사회에 대한 분노의 일단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그가 71년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으며 입고 온 옷은 어머니 박득숙씨가 생전에 지어놓았던 모시 옷과 쪽빛 마고자였다.

그의 어머니는 민족 차별의 웅여리를 안은 채 긴 세월 차디찬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석방을 염원하며 언젠가 출소하게 되면 입히겠다며 스무 벌가량의 한복을 지었다고 한다. 사건 당시 후지미야 여관에서 아들에게 "일본인에게 붙잡혀 더럽게 죽지 말고 깨끗이 자결하라"며 흰색 한복을 건네기도 했던 그 어머니였다. 아들에게 죽음과 삶의 옷을 선물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지어준 옷을 입으며 아들은 어머니의 꿈과 희망, 올곧은 삶에 대한 열정을 피

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어머니들이 존경스러웠고 동시에 그런 어머니가 되지 못한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어느 사이 우리들에겐 어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사주는 것을 가장 좋은 선물로 여기게 된 것 같다. 또 그것으로 자신의 어머니 역할 수행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왔던 것 같다. 생활이 넉넉한 이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으로 쉽게 스스로 만족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해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자책으로 가슴을 찢었던 것은 아닌지.

또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식들에게 대접받는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규정 짓고 그것으로 효와 불효를 판단하게 되지 않는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훗날 장성한 자녀에게 소중한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선물' 한 가지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아들 혹은 딸이 인생의 전환기에 서 있을 때 감춰두었던 '어머니의 선물'을 살며시 건네주자.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숙현**

지금이라도 훗날 장성한
자녀에게 소중한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어머
니만이 줄 수 있는 선물'
한 가지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아들 혹은
딸이 인생의 전환기에 서
있을 때 감춰두었던 '어머니
의 선물'을 살며시 건네주자.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발간'

여성연구소

소장 이숙현

Tel. 361-2425



송영주

한국일보 생활과학부 차장
도서관 81팀

공부보다 더 중요한건 리더로서의 경험

- 그 많던 공부 잘 하던 여학생은 어디에?

얼마 전 같은 신문사에서 여성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 여기자
와 남녀공학대 여대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게 됐다. 사회에서 일
하는 데 남녀공학대를 나온 배경이 장점으로 작용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남녀공학대의 배경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그
리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반면 여대 출신은 오히려
남녀공학대 출신들보다 사회에서, 적어도 여성계에서는 훨씬 큰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날 새삼스레 여성계 인사들의 이름을 꼽으며 후배 여기자
나와 여대 출신의 막강한 세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운동계, 여성정치계, 여성문화계, 여성경제계의 간판 스타들은 거
의 모두 특정 여대 출신들이었다. 정치적 배려에서 여성에게 할당된 여
러 자리도 이상하다 싶을 만큼 여대 출신 일색이다.

왜 남녀공학출신의 여성은 여대 출신에 비해 사회에서 뻥을 못 주고
있을까. 공부 잘했던 그 많은 여자 선배들, 친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대 출신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사실을 감안한다 해도, 연세
출신 여성 동문들의 사회 진출 비율은 너무 떨어진다.

대학을 선택할 때, 나의 첫째 조건은 남녀공학 대학이었다. 단순히 우
수한 남학생들과 즐겁고 신나는 학창시절을 보내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남녀공학 여학생이 그렇듯, 대학 졸업 후의 사회
진출에 야심찬 포부를 가졌던 나로서는 '여자들만의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 무언가 편협하고 폐쇄적인 인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 했

다. 이런 여고생의 눈에 남녀공학은 순탄한 사회 진
출을 위한 첫 단추였다.

그러나 남녀공학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자유
스럽고, 유연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차별에 분노하
고, 여성으로서의 각성을 깨우치기보다, 남학생과의
상생(相生)을 배웠고, 공동체적인 정서에 익숙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남학생들을 제치고, 리더역
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억울해 하는 여자 친구들은
없었다. 그렇게 남학생보다 한발자국 뒤에 서있던
나의 여자 선배들, 동료 여학생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꿈꾸기보다는 특권 받은 소수로서의 위치에
마냥 만족해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사회는 학교와 달랐다. 남성적 분위기의
사회에서, 여성은 특권층이 아니라 차별적 대상이
다. 16년 넘게 신문사에서 일하며, 성차별의 벽이 그
어느 직장보다 낮다고 알려진 언론계에서조차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남자를 뛰어넘는 투지와 근성이

요구됨을 절감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여학생이 최초로 총학생회 회
장에 선출됐다는 모교의 소식은 금녀의 자리에 여
자가 깃발을 꽂았다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감지하게 한
다. 점점 더 수가 늘고 있는 여자 후배들은 이제 리더
로서의 역할까지도 남학생들과 분담하게 된 것이다.
성의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상생의 지혜까지 동시에
터득한 여자 후배들이 사회에서 중견으로 활약하게
될 때는 아마도 우리 세대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위
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여성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학교에서 얻은 교훈
은 여자 후배들에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
게 될 후배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이다. 여
자도 어느 자리에서나 오를 수 있다는 자긍심은, 나
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할 것이고, 그 용기를 발휘하
기에 필요한 투지까지도 키워줄 것이다. **박영미**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며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보보스

50년대 미국의 상류층은 앵글로색슨 계열
의 백인 개신교도를 뜻하는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였다. 전통과 규율
의 50년대를 지나 60년대는 저항의 시대.
히피의 물결 속에서 소년기를 보내고 70,80
년대 학교와 일터로 나간 이들이 있다. 90년
대 이후 미국 사회 전면에 부상한 신흥 엘리
트 보보스(Bobos)가 주인공. 저자는 보보스
에게서 미국사회의 희망을 본다. 보보스가
보수와 진보, 전통과 현대의 통합자이기 때문
이다. 보보스는 부르주아와 보헤미안 문화로

대표되는 20세기 미국적 가치를 포괄한다.
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닷컴 기업의
출현으로 경제사회의 전면에 떠올랐으며 권
위보다 자율을, 통제보다는 자기 표현을 즐긴
다. 한 사회의 건강함은 그 사회 엘리트의 체
질로 판별할 수 있다. 책을 통해 건강한 엘리
트를 찾아 미래를 걸어보려는 미국 지식인 사
회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위클리
스탠더드' 편집장이자 '뉴스위크' 객원 편집
위원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
동방미디어 9000원

이영미

국민일보 문화부 기자
노어 92팀

사회는 학교와 달랐다. 남성
적 분위기의 사회에서, 여성
은 특권층이 아니라 차별적
대상이다. 16년 넘게 신문사
에서 일하며, 성차별의 벽이
그 어느 직장보다 낮다고
알려진 언론계에서조차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남자를
뛰어넘는 투지와 근성이
요구됨을 절감한다.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논문 72집



가족의 다양성과 젠더의 의미 변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바탕으로 한 남녀간의 '합법적인' 결합 이외에 그 밖의 가족유형들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는 시각이 오랜 동안 강도 있게 견지되어 왔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낙인은 더욱 심했다. 그러한 연유로 가족복지의 측면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되는 한부모 가족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족유형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부부중심의 핵가족내에도 남편중심형, 부부평등형, 상호방임형과 같이 다양한 부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면, 결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러 유형의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한부모 가족유형이다. 편모가족은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혹은 미혼모라는 계기를 통해 수동적으로 형성되므로 특히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이들은 현실적 생활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심리적, 경제적 역할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어떤 사유에서건 홀로 삶을 일구어나가야 되는 현실은 주위사람들과의 관계를 제한시키게 된다.

둘째, 동거가족의 유형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녀간의 동거가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는 새로운 측면이 관찰되고 있다. 이들이 동거를 시작한 계기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남녀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두드러진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한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있어 동거는 확실히 일반 결혼생활과는 달리 결속관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으로 비추인다.

셋째, 동성애 가족이다. 동성애 관계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대체로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만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편견임을 당당히 주장하기도 한다.

넷째, 독신여성가구이다. 독신으로서의 삶은 특히 결혼을 필수요건으로 보지 않는 젊은 층에게 있어 자유와 독립을 위한 대안적인 생활방식으로 그 선택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독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짝을 이루고 살지 않는 삶 자체에 대한 남성중심적 잣대와 편견은 뿌리깊게 남아 있다. 반면 외로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독신여성들의 노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가족에서 생각해야 할 가치는

첫째, 가족역할이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의해 규정되 기보다는 개별가족의 상황에 따라 특수하게 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지, 사회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있는 역할에 맞추어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부 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혼과 관련한 규범과 행동유형들은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성인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아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배려해야 한다. **김영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러
유형의 가족을 어떻게 볼 것
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축발간’

Uclick
사이버상담

김영란

Tel. 3455-1104

와인은 오래된 것이 좋다?

이인순

와인전문기자
영문 82 입

- 선부른 상식으로 버린 아까운 와인

너무 몰라도 불편하지만 껌 아는 것도 위험하다. 역시 와인을 쏟아 버린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홍콩에서 친하게 지내던 재미 교포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 부부처럼 와인을 즐겨 마셔 좋은 와인이 생기면 만나 같이 즐기곤 했다. 한 번은 그 부부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특별히 부탁해 구한 와인이라고 하며 Clos du Val(클로 뒤 발)이라는 까브네 소비뇽으로 만든 캘리포니아 와인 한 병을 선물했다. 어렵게 구하여 비행기로 공수해 왔다는 그 레드 와인을 받고 우리는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했다. 그런데 와인 병을 들고 벽돌색 라벨 위에 적힌 수확년도를 보니 1972. 그 숫자를 본 순간 난 고개를 갸우뚱하며 과연?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역시 그 당시 젊었던 나의 와인 상식으로 23년이나 되는 와인이 당시까지 과연 온전할까 싶었다.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인의 코르크 마개를 열었는데 색깔도 그리 인상적이지 못했고(가장자리

는 얼은 갈색을 띠고 있고 중심부도 붉은 색보다는 적갈색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듯싶었다.)향기도 오크 냄새 외에는 그리 다양하게 코끝을 자극하지 못하는 듯했다. 맛 역시 뭔가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결국 조금 마시다가 우리는 맛이 간 것 같지 않아?라며 서로 고개를 끄덕인 후 선물한 친구에게 미안해 하며 그 와인을 수채 구멍으로 꺾꽂이 털어 버렸다.

나중에, 그 와인의 빈티지가 우리가 받았던 그 시점이 마시기 최적의 상태였고, 오래 숙성된 와인이라 가격도 상당히 비쌌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린 오래 묵은 와인의 특성을 잘 몰랐고,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감상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아마도 이런 오래된 와인이 온전한 상태일까 하는 선입견이 이미 내가 와인 잔을 드는 순간 나의 눈과 코와 입을 다 달아 버려 제대로 와인을 음미할 수 없게 방해한 듯했다. 물론 그때 그 와인이 보관상이나 운반상의 문제로 우리가 판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오래 묵은 술 하면 흔히 뭔가 말로 표현이 어려운 그윽한 향기와 깊은 맛이 혀를 휘감아 돌아 입안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그런 술을 떠올린다. 와인에 따라 오랜 시간 숙성을 시켜야 좋은 와인도 있고 반대로 신선할 때 마셔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

럼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선부른 지식으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몇 달 전, 어느 와인 행사에서 1952년 산 보르도 지역 샤또 레꾸뉴의 레드 와인을 마셨는데 오래되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붉은 색과 체리를 비롯한 잘 익은 붉은 과일 향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듯 와인은 개봉해 마셔 보기 전까지는 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정확한 선입견은 와인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래 묵은 술 하면 흔히 뭔가 말로 표현이 어려운 그윽한 향기와 깊은 맛이 혀를 휘감아 돌아 입안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그런 술을 떠올린다.

그래서 와인을 즐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오래된 와인에 대한 것이다. 그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다.

와인에 따라 오랜 시간 숙성을 시켜야 좋은 와

인도 있고 반대로 신선할 때 마셔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세계 와인의 90% 이상이 수확한 지 1년 안에 사람들의 식탁 위에서 건배와 함께 사라지며 10년 이상의 오랜 숙성이 필요한 와인은 1% 미만이다. 결국 수확년도의 기후, 포도 품종, 제조 기술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각각의 와인 병을 오픈 할 최적의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신선주의**

이인순 - 보르도 와인아카데미 교육실장
와인입지 (로 서클) 기자

“외교통상부”

최현수

국민일보 정치부
정의 81일

강대국 틈바구니에 갇힌 우리나라처럼 외교력이 중요한 곳도 드물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숨 막히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련한 외교력이 요구되는 때. 이런 중요한 시절에 우리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통상부에서 여성 동문들의 활약상이 눈부시다.

외교부 동문들은 모두 11명. 외교부 직원 1710명 가운데 여성외교관은 64명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무려 20%에 가까운 비율이다. 게다가 하나같이 자 기분야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독 부 러진 일 처리와 원만한 대인관계로 어디에 내 놓 아 도 빠지지 않는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든든한 최고참 선배는 국제기구 심의관을 맡고 있는 강경화동문(정외 73). 김대중대통령의 영어통 역을 도맡아 하라 최근 많아진 유엔관계업무를 비 롯한 다자외교사안들을 관장하랴 몸이 2개라도 모 자랄 정도. 탁월한 영어실력에다 다양한 경력을 통 해 쌓은 날카로우면서도 균형잡힌 정치감각, 부드 러운(?) 카리스마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 다. 심지어 까다로운 기자들까지도 높은 점수를 주 고 있는 관리다.

두번째 고참은 외무고시 수석합격으로 외교부 입 부 때부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박은하동문(사학

81).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장으로 외교부내 유일한 여성 과장인 박동문은 어느 부서에서든 탐 을 내는 재원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외교를 담당하 고 있는 안보정책과 서은지동문(정외 86)은 부드러 운 외모와 달리 군축문제, 신뢰구축, 초국가적 범죄 등에 무거운 주제에 관심이 많고 어떤 주제를 맡겨 도 넉넉하게 해결해 상사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 다. 결혼한지 2년째지만 남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서 반도체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일 년에 얼굴보는 일이 며칠 안된다. 지적인 외모가 인 상적인 강수연동문(영문 92)은 외교부내 대부분의 직원들이 선망하는 북미1과에서 당당히 제몫을 해 내고 있다. 연수성적 1등으로 북미1과에 들어가 미 행정부와 의 까다로운 정무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한시 매 끄러운 의전으로 1과장으로부터 크게 될 재목이라 는 평을 받기도 했다.

99년부터 외교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장혜령동문 (신방 91)은 동북아1과에서 일본어 통역을 전담하고 있다. 올초 일본교과서 왜곡문제등 한일관계현안이 많아 야근을 밥먹듯했다. 일본 외무성에 장동문 팬 이 많다고 한다. 이외에 김효은동문(정외86)이 뉴욕 주 유엔대표부에서 유엔전문가로 자리잡고 있고 안 세령동문(영문 90), 서빈동문(정외 92)는 미국연수 중이며 손성연동문(정외 93) 박주영동문(정외 94) 조형화동문(영문 92)등이 새내기 외교관으로 활약 하고 있다. **전세백**

8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성예음악학원

오성혜

Tel. 931-8893
Fax. 931-7893
piano_angel@hanmail.net



사단 한국 알트루사
법인 여성상담소

소장 문은희

Tel. 3147-2341
Fax. 3147-2340
http://womenmind.simin.org

Monthly Magazine

Neighbor

(주) Solution Co.

사장 한현주

Tel. 3443-6923
Fax. 3443-6015
www.ineighbor.co.kr

SEYON MEDICAL CLINIC

세연내과의원

의학박사
전문 의 김경희

Tel. 567-4305



이름디온치과병원

www.beautifuilden.co.kr

원장 백일수

Tel. (031)385-0123



남영안전

보통안과전문의

Tel. 576-0991-2
Fax. 576-0993

정년을 지내고

정 올 순

강북 삼성병원 의사
의학 54년

저의 오늘은 지금부터 47년 전 연두 빛 꿈을 안고 고등학교 교복을 벗지도 못한 채 꿈길같은 백양로를 따라 들어온 연희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왼쪽 숲 속에 쌓인 한경관 2층에서 시작된 의예과 2년간은 우리에게 대학의 낭만보다는 책과 시험과 당락의 공포로 연속되었습니다.

함께 입학한 이공대 학생들은 교실을 바꾸며 학점과 수업을 임의로 신청하고 수업을 하였지만 우리는 한 교실에서 고등학교보다도 더 열심히 무섭게 공부를 하여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강의실 뒤편에 여학생들끼리 자리 잡고 앉았을 때가 겨우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발 밑으로 지나다니는 다람쥐를 보고 웃으며 서로의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으니, 잠깐의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은 참으로 순수한 무공해 세대였습니다.

학번을 모르고 학교생활을 지낸 세대들에게는 졸업 연도가 선후배를 따지는 지표가 되었지요. 저는 1960년도 졸업생으로 연희대학교 이과대학 의예과로 1954년에 입학을 했으나 지금 식으로 학번을 따지면 54학번인가요?

세월의 속도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20대에 느끼는 속도감과 60대에 느끼는 감은 아주 다릅니다. 세월의 속도에 가속이 붙는 모양이지요, 갈수록 빨라지니... 지금까지 의

과대학을 졸업한 여학생 수는 상당히 많은데도 모교에서 정년퇴임식을 한 분은 1999년도 강복순 교수가 처음이고, 타 대학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겨우 두 명 뿐인 것으로 압니다.

저는 처음부터 학교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교를 떠난 다음 공직생활로 25년전에 고려병원으로 들어갔으며 고려병원이 삼성병원으로, 또 4년 전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되면서 저도 소급하여 교수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급년에 처음으로 성균관대학교와 의과대학에서 성대한 퇴임식을 하여 화려한 꽃다발과 함께 분에 넘친 찬사와 기념패와 기념품을 받고 식을 마치고 돌아서니 감회가 컸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평생 정년을 모르고 임의로 끝내거나 계속하거나 하여 저보다 훨씬 선행되시는 분들도 지금 일선에서 열심히 활발하게 진료와 교육을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며 감히 정년이라고 업살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로 정년을 맞고 보니 마치 혼자 몰래 먹다 틀린 것 같은 자신의 나이를 헤아리며 나이도 모른 채 시간에 쫓기며 살아온 어제들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사반세기를 살아온 목은 살림을 정리하며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날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짐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 고민도 했지만 결국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집으로 슬그머니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모교에서도 속속 여 동문 후배들이 정년을 마치고 나오는 수가 늘겠지만 이제까지는 누구의

맛이었는데 그 수가 아주 적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급년에만 해도 많은 정년 퇴임하는 의대 교수 가운데 여자교수는 전국적으로 겨우 4명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많이 늘어서 우리 때의 5~10%(4~5명 많으면 7~8명)로 몇 년을 모아야 몇 십 명이었으나 근래에는 한 학년에 50~60명으로 50%나 된다고 하니 앞으로의 의료계에도 많은 여성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여자들이 전문직을 계속하려면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의사를 하려면 슈퍼우먼이나 된듯이 집안과 밖의 일을 있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던 시절, 그렇게 하고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자식들에게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해마다 다닌 우리들의 어제를...

그러나 사회와 가정 모두가 많이 발전되고 일하는 여성의 입장과 현실이 많이 이해되며 합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근래에는 조금은 낯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단한 각오와 가정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우리가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이 일을 계속하려면 적어도 4H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요. Husband의 협조와 이해, House keeper의 유지 그리고 자신의 Health, Heart & Hand가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기르며 느끼는 사실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들의 이해와 양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른들의 양보와 이해가 있고 부모님의 뒷받침이 있어도 당사자인 어린이가 견디어 내지 못하고 학교생활이나 어린이 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엄마로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갈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동

로 한 분이 일찍부터 개업을 하시고 슬하에 삼남매를 잘 기르셨어요. 공부도 잘하고 이제 어머니 손 안가도 될 만큼 성장하였을 때에 마침 개업하시던 병원을 이전하게 되어서 그 준비로 바쁘게 다니시다 덕분에 집에서 쉬시는 시간이 있게 되자 선생님 자신도 이제까지 바쁘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며 <아, 쉬고 싶구나. 이런 편한 세상도 있구나> 하고 무심코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식구들 앞에서 “엄마가 집에서 쉬니까 좋구나, 너희들과 이렇게 저녁도 함께 하고...(웃으며) 이 참에 아주 병원 그만둘까?” 하면서 식구들을 둘러보니...한참 만에 “엄마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는 안 계시고 이제는...앞으로 돈이 많이 들텐데...쉬면 어떻게 해요?”하는 아들의 말에, “공연히 집에 들어앉아 잔소리나 할 것이고...그렇지?” 남편도 한마디 거든다고...오! 모두들 이랬구나.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이참에 아주 쉬세요. 우리들도 좋게요...”하며 딸아이라도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어찌면...? 나만이 미친 듯이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집과 병원을 그리고 저희들을 따라다니며 길러 놓았는데... 들고 있던 수저를 본인도 모르게 놓고는 방으로 들어갔었다고, 담담히 하는 얘기를 우리 모두 듣고는 “다들 그럴거야... 내 아이들도 내 남편들도...”하면서 우리들의 허탈함을 웃어본 일이 있었습니.

물론 그 후에도 선생님은 다시 자리를 옮겨서 아

담한 진료실을 꾸미시고 열심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어린 환자들을 보살피고 계시지요.

자신이 계셔야 할 자리가 그 자리임을 너무도 잘 느끼고 아셨으므로...

비록 엄마가 하루종일 함께 있다고 반드시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식 기르는 역할은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자녀교육이 항상 여자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배려로 장래의 주인을 기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을 하는 엄마는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 순간들을 슬기롭게 지켜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사십 여년간의 사회생활을 그런대로 잘 끝냈음을 부모님과 형제들과 여러분께 골고루 감사하며 특별히 제 아이들과 남편에게도, 그간 동안에 큰 지장이 없었는가를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안하고 고맙다고.”

앞으로 많은 시간, 딸과 며느리의 아이들을 엄마 대신 돌보아 주어야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이 나이에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읽는 까닭

최 민 수

천성교회 사모
신학 67집

이 나이라 하니 동문들이 궁금하실 수 있겠기에 밝혀둬야 좋으리라. 1941년 생이니 만 60세, 한국 나이 61세이다. 늙어져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양 것에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 것에 익숙하고 좋아 하는데 이 나이만큼은 서양 것을 좋아한다. 말할 것 없이 그 뜻을 잘 알리라.

나의 학창시절은 소설책을 읽으며 꼬박 밤을 새운 때가 참 많았다. 특히 긴 겨울 밤 방학 땐 거의 매일 밤 그랬었다. 시골에서 하룻밤 동안 등잔불에 기름을 몇 번 채워야 했었고 전기가 들어온 후에는 전기로 많이 나온다고 어머니께 꾸중도 킁 많이 들었다. 밥먹는 것도 잊고 구석방에서 그 소설에 몰입되면 전혀 배고픈 줄을 몰랐었다. 특히 여고시절에 학교 도서관을 책임맡아 있었을 땐 매일 밤 별을 보며 귀가했었다. 나는 이 추억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다. “왕년 여고시절에 소설책 밤 새워 읽은 경험없는 자 나와보라고 해” 하실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는 그런 젊음과의 끈을 얼마나 맺고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결혼과 동시에 독서를 거의 못했다. 대학에 가서는 전공서적을 읽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소설을 손에 잡을 수가 없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50대 초반까지 1년에 몇 권의 소설을 읽었는지 손가락으로 헤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 필자가 요즘 50대 후반에 들어서 왕성한 소설 돌파를 하고 있다. 돌보기를 쓰고 소설 속에 매료되어 있는 모

습을 가끔 거울로 비쳐 보는 자신의 모습은 가관이
다. 마치 만화에서 안경을 콧잔등에 걸치고 손에 책
을 들고 어린 들짐승이나 집짐승들 아니 어느 땐 어
린 공주를 앞에서 책을 읽어 주는 할멈모습 같기도
하다.

아무튼...

목사부인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써야지 격
에 맞지 않게 30대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읽는데는
필자 나름의 철학이 있어서이다. 물론 성경이 내손
에서 떠나는 일이 없음을 상식적인 일이다. 그 첫째
철학은 젊었을 때의 감수성 회복을 위한 것이다. 예
순 고개에 이미지 소설 「홍어」라는 소설을 쓴 김주영
작가는 「홍어」를 쓰면서 어린 시절의 감수성을 불러
일으키는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렇다. 일생을 소
설을 쓴 작가도 나이 예순에 젊은 주인공(살바도르)
하는 어머니, 13세 소년, 16세 소녀의 이야기를 쓴
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필자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마음
이 요즘 들어 펄 질어진다. 나 뿐 아니라 이 나이 쯤
된 여성이라면 초로 인생인데 아직 늙음에 익숙치도
못하고 그렇다고 젊음과의 연(連)이 충분치도 못한
상태이다. 사추기는 훨씬 넓은 형편이다. 자식들이
출가해서 새끼를 낳아오니 어느날 갑자기 준비없이
할머니가 된 상황이다. 그 아

이들이 처음 할머니! 부를 때 어색하기도 했고 어느
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는 듯 주위를 둘러 봐도
그 곳에 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어울리지 않는
듯 하지만 정확한 할머니로 익어간다. 호칭은 인간
성을 형성해 가는 것 같다. 그렇게도 나한테 안 어울
린다고 거부해 가면서 어느 날 내가 진짜 할머니 짓
을 하는 것을 느끼며 깜짝 놀란다. 머리는 이마 양쪽
에 흰 깃털 처럼 나오기 시작하고 걸음걸이도 느슨
해지고 손자들에게 잔소리가 가속이 붙어지고 두세
번 해 주던 이야기 습관이 진짜 반복의 1, 2, 3 절을
되뇌이게 된다. 이렇게 흥수처럼 밀려오는 늙음과의
차단기 역할을 젊은 작가의 소설을 읽는 것으로 하
는 재미에 빠져 있다.

29살에 목사 부인이 되어 그 나이 걸맞지 않게 늙
음이 빨리 왔을 수도 있었던 나로선 그것을 반전하
는 일을 하고픈 것이다. 「양귀자」 「신경숙」 「김진명」
「공지영」 「전여옥」 「이나미」 「은희경」... 수많은 30
대 작가의 소설 속에는 나의 현주소의 상황과는 아
주 거리가 먼 상황들을 설정해서 픽션을 이끌어 간
다. 그 소설을 읽는 동안 그 속에 나는 꼭 매몰되어
있다. 나는 남편과 가끔 영화나 TV 드라마를 함께
볼 때가 있다. 나는 그 영화속 설정에 빠져서 주인공
이 위기에 처할 때 안절부절하며 손에 땀을 쥔다. 그
러나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즐긴다. 남편의 이론은
주인공은 죽지 않는 것이 법칙인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속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이나 영화속 이야기
에 울고 웃지 못하는 남편이 부럽지 않다. 나는 만화
를 보면서 울고도 싶고 「마르셀라의 추억」이라는 영
화를 보며 내 30년 동안 아이들과의 여름, 겨울 방학
때 추억을 되살리는 동기 부여도 한다.

추억과 미래는 모든 인간에게 현재의 주연을 돋보

“ 추억과 미래는 모든 인간에게 현재의 주연을 돋보이게 아니 명명하게 상상하게 해주는 조
연들이다. 추억의 조연이 신통치 않을 때 현재라는 주연은 바닥없는 허공을 허우적거릴 수 밖
에 없고, 미래라는 조연이 등장하지 않는 현재는 캄캄한 밤에 등불없이 논두렁을 비틀거리며
걸을 수 밖에 없어 답답하다. 나는 과거라는 조연인 감수성을 이 초로에 재등장 시키고픈 욕망
때문에 30대 작가의 소설을 즐겨 읽는다. ”

이게 아니 명명하게 상상하게 해주는 조연들이다.
추억의 조연이 신통치 않을 때 현재라는 주연은 바
닥없는 허공을 허우적거릴 수 밖에 없고, 미래라는
조연이 등장하지 않는 현재는 캄캄한 밤에 등불없이
논두렁을 비틀거리며 걸을 수 밖에 없어 답답하다.
나는 과거라는 조연인 감수성을 이 초로에 재등장
시키고픈 욕망때문에 30대 작가의 소설을 즐겨 읽
는다.

두번째 철학은 댄디즘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미
워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이다. 댄디즘이란
19세기 초반 영국 귀족계급 청년들이 자기 세대를
표출하기 위하여 독특한 몸치장이나 생활방식을 선
호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80년대
말 이후 자본주의 발달로 소득과 여가가 늘어나면서
댄디즘은 대중문화로 확산됐다. 거품경제 속에서 소
비사회로 급속히 발전한 한국사회의 「여파죽」은 댄
디즘의 현대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런 대중문화 댄
디즘의 일종의 표현들이 교회 청년들에게라고 침식
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교회 청년들의 웃모양,
중·고등학생들의 머리모양들을 한 번 훑어 보라.
가위를 들고 가서 잘라 주고 싶은 머리모양부터 웃
모양 손짓 발짓 ... 모두가 이 나이인 나의 정상적인

감성으로 도저히 그들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어쩌랴... 바지로 온통 거리를 쓸고 다니는
청소년, 옷소매 밖으로 겨우 손가락 몇 톱막만 내놓
고 병신처럼 손짓하는 모습, 머리는 눈을 다 덮고 콧
잔등까지 내려와도 잘 보이는지? 이런 멋부림, 멋없
음, 우연적인 것 등으로 정의되는 댄디즘에 침몰되
어 있는 현대소설들이긴 하지만 교회 청년들에게도
댄디즘은 유행되어 변저있는 그들을 즐기는 눈으로
보지 않고 이해함의 눈길로 보기 위해 젊은 작가들
의 소설을 탐독한다.

세번째 철학은 나의 여고시절을 재연함으로 잃어
버린 추억을 영롱하게 낚아 올리고 싶음에서이다.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노천명」의 시에 나오는
사슴은 슬픈사슴이 있었다고 작가는 유추하지만 분
명히 목이 짧은 필자는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소설
을 읽었던 알찬 추억이 있었다. 나는 스스로 알찬
추억을 영롱한 수채화처럼 그리고픈 욕망에서 비록
돋보기를 쓰고 읽지만 소설 읽는 것은 나의 즐거움
이다.

K.발트는 성경과 신문을 크리스찬들이 필독하여
야 한다고 했지만 필자는 성경과 소설도 크리스찬의
필독 교과서라고 한다면 어떨까. **김영수**

노는 재미

이 판 영

수필가
의생활 71일

대개의 남자들은 아내를 포함한 전업주부들을 '노는 여자'인 줄 알고 있다. 가사와 가정을 매니지먼트 하는 일이 주부들의 '일'이라고, 그것도 가치를 따지기에는 너무도 고귀한 일이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진심으로 수긍하는 것 같지는 않다. 백번 양보해서, 그들 말대로 주부가 '노는 여자'라고 치자.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토록 노는 일에만 전념하느냐며 만날 때마다 나의 죄책감과 사명감, 내지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자극하려고 집요하게 다그치는 친구가 있다. 사회적인 일을 하지 않는 나같은 주부가, 그의 눈에 노는 것처럼 보일 지언정 뭣뭣치 못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다. 자랑할만한 껴리는 안되나 부끄러울 일도 아니지만, 매번 다그침을 당하는 내게는 그럴듯한 명분 하나는 있어야 했다.

젊었던 시절 공부를 더하거나 일을 시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기회를 낭비해야 했던 깊은 뜻은... 사실은 내가 아무 것도 안하고 노는 것을 참으로 즐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주 이기적이거나 살아오면서 신세진 각종 인연에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닌데, 동창회의 아주 작은 갑투조차 써본 일이 없다. 무언가 직책을 맡으면 참여하는 게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므로, 그것이 싫어 어느 조직에서나 백의종군을 부르짖어 왔을 뿐, 오히려 열성적

“개미 집단이나 인간 집단이나 생존의 법칙에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이른바 사회라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노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집단에 끼지 않고 노는 집단에 끼어있다고...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 그거야말로 오히려 운명적인 것이 아닐까?”

인 협조자 속에 든다.

약간이나마 걸리는 대목은 제법 배운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부분인데, 내가 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에 적절한 대꾸를 할 수 없었을 뿐이다.

다행하게도 나는 얼마 전 월간지를 읽다가 무릎을 찔만한 대목을 마주하였다. 곤충학자들이 개미를 관찰한 결과, 70%의 일하는 개미가 30%의 노는 개미를 먹여 살리는 것을 발견한 이야기였다. 학자들이 노는 30%의 개미를 집단에서 제거하고 일하는 다수를 남겨놓은 후에 다시 관찰하니, 그 중에서 노는 30%가 새로 생기더라는 고무적인 내용이었다.

세상에! 내가 놀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개미 집단이나 인간 집단이나 생존의 법칙에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이른바 사회라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노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집단에 끼지 않고 노는 집단에 끼어있다고...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 그거야말로 오히려 운명적인 것이 아닐까? 내가 일한다면 대신 노는 삶이 반드시

하나 생겨날텐데,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차라리 노는 일을 즐기는 내가 노는 게 인자상정 아닐까?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자도 많은데, 일은 그들에게 양보해야 마땅한 것 아닐까? 요즈음 갑자기 '느림의 철학'이라던가 '단순하게 혹은 느리게' 등의 철학적으로 노는 것에 대한 책이 유행이지만, 그 말이 유행하기 전에 벌써 느림의 미학을 알아버린 나의 통찰력이 그렇게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의기양양하게, 나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개미 사회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였다. 이왕 노는 집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 나같이 잘 노는 사람이 노는 게 낫지 않느냐는 나의 농청에, 그는 "그렇게 잘 논다면,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느냐에 대한 책을 써보라"고 답했다. 기가 막힌다. 책을 쓰려고 노는 일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미 노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일인 것이다. 그 날의 논쟁에 승자는 없었다.

이제는 왜 노느냐는 질문에는 변명할 껴리가 생겼는데, 다른 고민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CONCLUSION**

치과이야기

차가현

치과의사
치의학 85집

내가 치과의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이외로 단순하다. 신촌 근처의 여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매일 연대 정문을 통해 쪽 뻗어있는 백양로를 눈부시게 바라보면서 '꼭 이 학교를 다니고 말테야!' 하는 꿈을 키워왔던 것이다. 83년 1월 학력고사 점수를 받아들이고 여러 학과를 물색하던 중 치과대학이 눈에 들어왔다. 마침 아버지도 내가 의과계통의 전문직이성이 되었으면 하시던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치과의 '치' 자도 모르는 채 가슴 설레이며 연세대학교 치과 대학생이 되었던 것이었다.

내가 치과에 처음 간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어느날 담임 선생님이 이가 흔들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양호실로 데리고 가셨다.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새끼들처럼 벽 모서리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자 한 선생님이 오시더니 비정하게도 맨 뒤쪽에 웅크리고 있던 나를 제일 먼저 꼬집어 내시는 것이 아닌가? 입을 벌리고 온 몸에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그것이 첫 치과 경험으로 그 이전에 유치를 치료했던 기억도 없고 그 다음에도 아들은 저절로 빠졌다. 밥을 먹다가, 이를 닦다가, 어느 때는 내가 덜덜덜덜할 때까지 흔들다가 뺐 적도 있었다. 영구치가 다 난 후에도 특별히 비뚤어진 이도 없었고, 아픈 적도 없었기에 치과에 갈 일은 없었고 무엇보다 치아 자체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

다가 고등학교 3학년의 어느날 아래 어금니 뒷쪽 잇몸이 부으면서 몹시 아팠다. 치과에 가 보니 사랑니 때문이라고 했다. 사랑니가 뼈 속에 박혀있고 옆으로 누워있어 빼기가 힘들다고 했다. 게다가 고3이니 시험이 끝난 후에 빼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 앞의 어금니가 조금 썩었으니 치료하자고 하셨다. 난생 처음 해보는 충치 치료였지만, 기계소리만 요란할 뿐 많이 썩지 않아서인지 별로 아프진 않았다. 아말감이라는 회색덩어리가 박힌 내 이를 한 번 들여다 보고는 그걸로 그만이었다.

자신의 치아 갯 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외로 많지 않다. 만일 '퀴즈가 좋다'라는 TV프로에 문제로 나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ARS 찬스를 쓰거나, 지우개 찬스를 쓸지도 모르겠다. ① 24개, ② 28개, ③ 30개, ④ 32개 중 정답은 무엇일까?

치아의 갯 수 뿐 아니라 유치와 영구치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치아는 또 사람마다 개성이 강해서 얼굴이 둥근 사람은 치아도 평평집한 경향이 있고, 얼굴이 가름하고 긴 사람은 치아도 날씬한 경향이 있다. 충치가 많은 사람은 풍치가 있을 확률이 적고, 어려서 충치가 하나도 없던 사람도 나이들어 풍치로 이가 다 빠져버리기도 한다. 어떤 이는 하루 세 번 꼬박꼬박 이를 닦아도 치과의 단골손님이기도 하고, 어떤이는 명절 때마다 이를 닦는 데도 냄새만 좀 날 뿐 구멍하나 없기도 한다. 하지만 "난 먹는 것도 있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하는 말이 대개 거짓말이듯이, 치아가 부실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 이유를 찾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치과의사의 할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인 오종우님의 시를 인용하며 치과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오종우**

참, 위 문제의 정답은, 사랑니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근래엔 선천적으로 사랑니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② 28개가 정답이고, 사랑니를 포함할 경우에는 ④ 32개가 정답이다. **오종우**

내 주인은 나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나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일년에 두 번씩 대청소(스케일링)도 해줍니다.
산성비에 혹시 상하지나 않을까
불소로 된 비옷도 입혀주고
자기 전에는 꼭 목욕도 시켜줍니다.
꼭 그래서라기 보다
나도 내 주인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인을 위해 이를 악물고
일할 작정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현물이니까요.

내 주인은 나를 미워합니다.
어쩌다 비자금(비)이 생기면 그걸로 몽땅 사랑을 사서
내 몸동아리에 처발라 놓아
나를 녹초로 만듭니다.
굴뚝 잠갈 때는 하루종일 노동을 해서
피곤한 나를 씻겨주지도 않고
진흙탕 속에 그냥 재웁니다.
내 몸에서 구리구리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나는 주인과 이별해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윤 정 미

전 교사
사회체육 75년

아버지! 이제는 작은 목소리로 입 속에서 중얼댈 수 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꼭 떠나신지 1년이 되었으니 세월이 참으로 덧없고 유수와 같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던 양 산에는 꽃이 만개하였고 항상 가꾸시던 문 밖 장미나무에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동네어귀에 걸터앉아 말으셨던 아카시아 향내도 그대로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데 항상 그 곳 그 자리에 제실 것 같던 아버지가 아니 계십니다.

이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 아버지의 애뜻하신 父情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저에게 관대하셨고 의지하셨던 아버지를 내가 좋아하는 '가평현리'라는 술에 묻고 돌아오던 날, 그날도 지금처럼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맑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리움의 시간들이지만 이제는 불러도 아무 소용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75년 5월 기억하시는지요? 입학과 함께 찾아온 첫 연세축제에 빨간 넥타이를 하시고 저와 함께 참석하셨던 일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던지 누가보면 두사람 다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텐데..., 그때 저와 아버지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독수리상 앞에서 만나 첫사랑 애인과 함께 거니는 것처럼 가볍고 즐겁게 백양로를 활보했었지요. 아! 그 기억이 이리도 생생한데...

“ 첫 연세 축제에 빨간넥타이를 하시고 저와 함께 참석하셨던 일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던지 누가보면 두사람 다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텐데..., 그때 저와 아버지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독수리상 앞에서 만나 첫사랑 애인과 함께 거니는 것처럼 가볍고 즐겁게 백양로를 활보했었지요. 아! 그 기억이 이리도 생생한데...”

아버지!

처음 교편을 잡아 발표회를 하던 날 아버지, 어머니를 맨 앞자리에 모셔놓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보여드렸던 마스게임과 Folk Dance를 참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시던 일 생각나시지요. 항상 아버지께서는 부끄럽지 않은 딸, 자랑스러 딸로 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진정행편이 어려워도 제가 도움 힘이 있어 편히 모실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메달메달 생활비와 용돈을 받으시며 미안해 하시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아위신 손으로 멋지게 받으시며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그 짐스럽던 그 때가 그립습니다.

명절 때 생기는 구두티켓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가벼운 구두라도 몇켤레 더 신고 가지지...

그렇게 좋아하시던 계장도 오월이 계절인데...

어느날 문득 아버지께서 아주 가끔 부르셨던 '신고산이 우르르...' 하며 조금은 구슬프게 들렸던 그 노래를 가만히 속으로 불러 보았습니다. 가사도 잘 이어지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부르시던 유일한 그 노래 참으로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연이 정말로 우연이 아니었겠지 만 다시 색다른 인연으로 만날 수 있을런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께 효도인지 한번도 말씀으로 알려주신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흰머리 하나, 둘 생겨나는 젊지 않은 나이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것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상에서 모셨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SUMMARY**

‘축발간’

버쥬얼텍

사장 서지현

Tel. 3140-1000



손민

변리사
생화학 81일

변리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5월은 참 바쁜 달이었다. 가뜰이나 행사도 많은 달에 사무소까지 이사를 하다보니 더욱 정신이 없었다. 짐도 풀어야 하고, 진행되던 사건들도 처리하여야 하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 받은 동문 선배님으로부터의 전화는 나를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타임머신 같은 마력을 지닌 것이었다.

내 직업은 변리사이다. 요즘은 변리사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없지만 약 10년 전만 하어도 변리사하면 "아, 병아리 감별사요?" 라고 말했다 한다. 내가 아는 한 변리사는 병아리라고 특별한 관련이 없다. 변리사는 말하자면 기술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와 유사한 직업이다. 기술과 같은 무형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문서를 작성하고, 심판, 소송, 컨설팅 업무를 행하는 것이 변리사의 주 업무이다.

1986년에 모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공부를 계속할 생각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었다. 위스콘신 대학교 생화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하였는데, 물질적으로는 유학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 당시 나는 남들과 같이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리사라는 직업이 우연히 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위스콘신 대학교 박사 과정의 첫 2년 동안은 많은 수업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내 실험실의 바로 옆 방 어느 교수님만은 강의를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기에 궁금하여 미국 친구에게 도대체 어찌된 연유인지를 물었더니 (당시만 하어도 영어가 팔려 주위의 소문 등을 알아들을 처지가 아니었다), 그 교수님은 연구 결과를 특허내어 이를 기업에 양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특허청에 소송에 연루되어 5년도 넘게 싸우고 있고, 교수님이 그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강의를 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이 사건은 당시 위스콘신 대에서는 유명한 소송이었고, 위스콘신 대학교 생화학과가 그동안 특허로 많은 연구 자금을 모아 교수들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많은 교수님들이 기술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리사를 만나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특허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내 기숙사 옆집 미국 친구는 변리사(patent attorney)가 되겠다고 과정을 밟고 있었고, 나의 박사 과정 입학 동기 중 어떤 미국 친구는 도중에 학위를 포기하고 특허가 되는 발명을 하겠다고 미국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웬일인지 내 주위에는 특허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히 변리사에 관심을 갖게 된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변리사 시험을 보고 변리사가 되었다. 그 후 많은 종류의 일을 경험하였다. 연구원 생활에 더하여 특허청에서 2년간 심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그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을 하였다. 지금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변리사, 변호사들과 함께 한일특허사무소를 개설하여 삼성동에서 개업 중이다.

물론 그 누구도 어떤 직업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후배들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후배들이 나의 경우처럼 우연히 특허(요즘은 상표, 의장,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하여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라는 분야를 접할 기회가 없다면, '변리사'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볼수록 권하고 싶다.

변리사의 업무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인 발명을 특허화하는 것, 팔대나 그릇 등과 같은 일상 용품을 개량한 것 등을 실용

신안화 하는 것, 상품에 부착되는 상표나 업무를 나타내는 서비스를 등록, 관리하는 것 등이 변리사의 업무이다. 이외에 Industrial Design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등록하는 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는 일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의신청, 심판, 소송, 기술이전(라이선싱), 프랜차이즈, 기술 평가 등도 모두 변리사들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우리나라 변리 업계에도 최근에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남성 변리사들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변리 업무는 그 성질상,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 업무가 잘 어울리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이기에 앞으로 여성들이 진출하기 좋은 유망 업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여성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나처럼 순수 학문을 공부한 사람뿐 아니라, 공학, 인문사회학 등 그 어떤 것을 전공한 후배라도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변리 업무를 개척할 수 있다. 자신감과 용기만 있으면 말이다.

우연히 이 길을 먼저 걷게된 선배로서 앞으로 이 분야를 이끌어갈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내가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어떤 선배의 글을 읽고 이 길을 가게 되었노라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졸업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쓴 보람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앞서간 선배님들께 나와 내 후배들이 건고자하는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맺는다. **손민**

생화학 81일/위스콘신 대학교 생화학 박사/특허청 심사관/김&장 법률사무소 한일특허사무소 개소(2001.5.11)변호사 10인 변리사 3인과 함께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성공화타워 17층
T.02-6203-1020 F.02-6203-1026

변리 업무는 그 성질상,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
업무가 잘 어울리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이기에
앞으로 여성들이 진출
하기 좋은 유망 업종의
하나이다.



정 행 자

전 여자동창회 부회장
도서관학 60집



고위 여성 지도자 과정(T.M.P)을 마치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연세 교정으로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는 고위 여성 지도자 과정의 총동창회 및 수료생 특강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연세! 나의 사랑하는 모교...

내 나이가 접어서 30살이 되었으니 캠퍼스를 떠난 지 꽤 오래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연세 흙을 밟으며 산다. 나는 이 과정을 밟으면서 진정 고위 여성 지도자 과정이라는 제목처럼 여성 지도자로서 어느 한 면이 잘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의심도 해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나의 재능개발에 나 자신 놀랐으며 삶에 대하여 능동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저 하얀 도화지에 나의 인생을 잘 그려 한쪽의 멋진 그림을 자식들에게 남기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활기를 찾아냈고 중년에 필기도구를 챙겨 학교에 간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으며 여유있게 좌우의 풍경을 아끼며 바라보는 한 단계 높아지는 정신적 회일로 가득차 있다.

T.M.P에 들어가기전 설립취지의 글을 읽었다. 대강 이렇게 쓰여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식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기존의 전통적 역할을 초월한 국가적·시대적 새로운 장을 연다고 되어 있다. 또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배우며, 실험하며 실천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고급 인력자원인 여성들의 사회적·문화적 편견과 지식, 정보 부족, 여성간의 협력 체계의 조화롭고 능력있는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는 이 취지를 읽으면서 아득히 작아진 나 자신이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만큼 나 자신이 개발되어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경우에서든 여성지도자로서 한 몫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열정으로 마음이 뜨거워 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13기가 매달 셋째 수요일날 강의가 있는데 그날

그저 하얀 도화지에 나의 인생을 잘 그려 한쪽의 멋진 그림을 자식들에게 남기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나는 활기를 찾아냈고 중년에 필기도구를 챙겨 학교에 간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으며 여유있게 좌우의 풍경을 아끼며 바라보는 한 단계 높아지는 정신적 회일로 가득차 있다.



엔 늘 젊음이 넘실대고, 느즈막하게 새로 만난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어졌으며, 나 자신을 더 알고 싶었고 인생을 깊이 명상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곤 했다. 유난히 적극적인 내 성격에 불이 붙은 것일까? 빛나는 교수들의 전문적이고 해박한 강의로 머리는 맑아지고 아주 유식해져 갔다. 그리고 다양한 자치활동으로 활발하게 협력하였으며 그중에 우리는 퓨전 로미오와 주리엣을 각색하여 연극무대에 섰고 중년의 아름다운 추억의 이벤트로 엮어가고 있었다. 그외에도 컴퓨터 교육을 받았고, 특히 소년소녀 심장 수술, 개안 수술 등을 돕는 갖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이 모든 일들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삶의 전개를 이끌게 되었다.

또한 T.M.P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후속강좌를 청강하도록 해주어 항상 윤기나고 풍요로운 사고를 할 수 있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집안 텃밭에서 풀을 뽑으며 채소밭에 물을

주고, 때로는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데, 이 일 저 일 뛰어다니다가 그래도 수요일이 되면 대하시절 즐겨 들었던 "Unchanged my heart"로 차 안을 채우며 연세로 달린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 공부하고 싶은 여름 같은 열망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성지도자로 잘 다듬어져 발전해 가고 싶은 여망 때문이다.

참으로 연세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고 보금자리다. **연세사랑**

현 소 은

동대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원동 80집

연세동산의 선물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고, 내 나이는 불혹의 나이를 넘는다. 반평생은 죽히 살아온 터인데 아직도 세상은 일에 서투르기만 하고 어설픈 것만 하다. 마흔 하나란 나이는 어디로 먹었는지 나의 정신연령은 자타공인받는 미성숙아 수준이다. 하지만 그래도 내게 기록한 것이 있다면 즐거울 때나 힘들때나 기쁠때나 괴로울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아왔던 것이다. 어찌보면 너무 하나님께 의지하다보니 어리석음 때도 있었고 세상사에 여물지 못했던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하지만 내 어리석음과 서투름으로 인한 역경들은 내 허물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다만 내가 너무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없는 사랑과 한없는 이해와 가르침으로 나를 보듬어 주고 밀어주고 끌어오셨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준 것은 바로 연세동산의 선물이었다.

연세동산은 참으로 자유스러웠고 사랑스러웠

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에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일꾼이 되었던 선배님들의 체취를 느꼈고, 그 건물들을 감싸고 도는 담쟁이 넝쿨처럼 우리들의 이야기와 선배님들의 체취는 함께 어우러졌다. 연세를 거처간 그 많은 주역들의 청정한 기상은 연세동산의 아침공기처럼 우리에게 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 청송대의 푸르른 소나무들은 하나님 사랑의 파수군들 같았다. 연세의 모든 바탕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생동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연세동산의 곳곳이 나에게 고마운 추억을 주었지만 내게 특별한 추억을 품으라치면 루스 채플이 생각이 난다. 학부시절 채플시간은 철없던 내게 지루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어느 틈엔가 나는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배가 끝난 텅 빈 루스 채플에 혼자 가곤 했다. 웬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 가서 조용히 앉았다 오면 꼭 하나님께 고해하고 온 것 같았다. 그러다가 대학

연세에서의 모든 추억을 사랑하듯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임하리라 다짐해 본다.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연세동산이 주신 선물이 나만의 선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세의 후배들에게, 또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모두 다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에 다니면서부터는 주일 채플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의 설교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 같았다. 하나님은 그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 같다. 유학을 가느라 루스채플에서의 나의 예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령의 씨앗은 미국에서도 발아를 하여 세례도 받고 지금껏 자람이라고는 하나님 믿은 것 밖에는 별로 찾을 것이 없는 나 자신이다.

남들이 보면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러저러 고난도 겪어본 것 같다. 어리석음과 실수라는 것이 다 나의 약점이고 허물이지만 한편 이제와서 생각해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이었다. 사랑이 부족하던 내가 힘들때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며 사랑을 머릿속으로나마 반복해본다. 하나님의 손길로 흠없이 다듬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문재아임을 기꺼이 자인한다.

연세동산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

복 해 주었는데.... 지금껏 안일하고 이기적인 내 모습이 창피스럽게 초라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무엇으로든 연세동산에도 하나님께도 답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늘 남들보다 때늦는 게 달음은 불혹의 나이에 또 여전하다. 조금 늦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감이라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셨다. 연세동산의 선물이 곧 성령의 씨앗이었고 그 선물이 든실한 열매를 맺도록 나는 조금씩 한발자욱씩 노력하며 배워나갈 것이다. 연세에서의 모든 추억을 사랑하듯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임하리라 다짐해 본다.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연세동산이 주신 선물이 나만의 선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세의 후배들에게, 또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모두 다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세백일기**

연세대 미중서부 여자동창회 출범

초대회장 홍정숙, 이사장 이미자 동문



연세대 미중서부 지역 여자동창회가 지난 해 12월 12일 오후 6시 래디슨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홍정숙(영문 58입)동문을 초대회장으로, 이미자(간호 58입)동문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시카고 여성 100인으로 선정된바 있는 홍정숙 신임회장(시카고 도서관 부커미셔너)은 인사말을 통해 "LA와 워싱턴, 뉴욕, 애크런, 보스턴에 이어 미주지역에서 5번째로 시카고 동창회가 출범했다."고 소개하고 "끈끈한 인연으로 묶인 우리, 함께 모여서 연세인의 긍지를 나누고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우리의 지혜와 특기를 나누고 친목과 우애를 다져가는 뜻있는 동창회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으며 흠어진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전 UIC 부총장이며 모교 간호대학에서 1년간 교원교수로 일하시게 된 이미자 초대이사장도 "79년 3월 30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탄생된 여자동창회가 현재 4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 연세여자동창회'로 발전한 것처럼 먼 훗날 우리들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명실공히 시카고와 미 중서부를 밝히는 보석같은 빛과 지적 파워를 발휘하기 위해 더욱 전진하자고" 역설했다.

김우식 총장은 "여러분은 연세의 귀한 딸들이며,

보배이고, 자랑이다. 연세의 긍지를 갖고 상부상조하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동창회로 키워가라"는 축사를 보내왔으며, 이순희 회장도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이다.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모교와 사회, 그리고 세계의 자랑이 되게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미중서부 연세여자동창회 향후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여성 문화사업과 자녀교육사업, 여가선용, 사회봉사 등 주요 핵심 사업들에 대해 참석동문들의 의견을 즉석에서 수렴했다.

이날 부회장에 김원재(간호 66입), 총무에 이경희(간호 72입), 서기 장승미(영문 82),

회계 현혜정(영문 93), 감사에 손혜숙(영문 58), 최선옥(의과 58), 유근실(간호 66), 동문이 그리고 Team장들이 추대되어 초대임원으로 수고하게 되었다.

Team장은 간호대학 : 유근실, 김종남(간호 67), 문과대학 : 장승미, 임혜정, 음악대학 : 황정애(종교 음악 81), 최태희, 의과대학, 이공대학, 가정대학 : 최선옥, 원재경(의과 66), 대학원 및 유학생 : 배미순(국문 65), 이경희 동문 등이다. 단체 사진

물 속의 돌

김 종 희

시인
영문 57입

가만히 있어도
시냇물 속에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물 따라 가지 않아도
물 부서져 진토가 될 뿐

벽과 살 달고 달아
진토가 될 뿐

누가 손 한번 대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아도
몸 부서져 땅가져 진토가 될 뿐
아, 스스로 진토가 될 뿐

금강석처럼 단단한 몸
꿈꾸며 꿈꾸며
진토가 될 뿐

모교소식

○ 연세창립 116주년 기념 동문 대음악회

모교 창립 116주년 동문의 날을 맞아, 동문 대음악회가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본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모교와 동문회가 공동 주최하고 음악대학과 음악대학 동창회 주관으로 100여명의 동문 관현악단과 350명의 동문 및 재학생 합창단으로 구성된 대음악회(지휘 최승환 교수/작곡 68입)로 5월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동과 열정의 선율로 수놓았다.

○ 신촌세브란스 새 병원 신축공사 시작

구 간호대학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면서 새병원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제2도서관 건립 확정

현 중앙도서관 뒷편에, 연구중심 도서관으로 운영예정

○ 기여입학제 주장

동문동정

▲ 유승미(전 여자동창회장, 정의 59입) 동문 장남 고한서(토목 86입)군이 성균관대학 기계공학 교수로 취임.

▲ 김용진(의학 60입) 동문은 그간 운영해 오던 내과 병원을 정리하

고 건강보험 시사 평가원 상임 심사관으로 취임. 연세 동문회 여성분과 위원장으로 임명.

▲ 천화숙(사학 61입) 장남 김용남군의 결혼식을 5월 27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질예정.

▲ 신갑순(음악 55입) 삶과 꿈 대표인 신갑순 전회장이 6월 9일 7시 LG아트센터에서 "마네징" 대공연을 가짐.(T.318-1726)

▲ 이미재(간호 58입) 부군과 함께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여 1년간 연대 간호대에서 강의.

▲ 문은희(교육 60입) 동문 서울여대 겸임교수로 취임. 알투루사 여성상담소(T.3147-2341) 운영중.

▲ 오혜식(영문 55입) 동문 이화의국어 고등학교 교장이시며, 강남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에 '은혜감리교회'를 부군 이준영목사(정의 54입)와 개척하여 협동목사로 활동하신다. (T. 501-4936)

▲ 최만재(신학 62입) 동문 현재 '아시아기독교여성 문화연구원'(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5층 Tel: 312-2302)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성공회대학교에서 '여성신학'을 강의하고 계심.

▲ 조혜정(사학 68입, 연세대 사회학 교수) 동문 청년문화센터 소장으로 부임.

▲ 김동화(국문 73입) 동문 MBC 에드립 제작국장으로 승진. (T.3272-3322)

▲ 최준애(사회 73입) 동문 KBS 경제부장 부임.

▲ 이연주(정의 79입) 동문 여자동창회 임원이며,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이사인 이동문이 3월 1일부터 모교 생활환경대학원 객원교수로 부임했다.

▲ 방정숙(법학 85입) 동문 진주지청 검사로 부임하였다. (T.055-752-2123)

▲ 이방숙 모교 음악대학 교수가 3월 2일 한국피아노 듀오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 이숙현(사회 74입) 연세대 여성연구소장으로 부임.

▲ 구정진(의학 73입) 한나 여성클리닉 부원장으로 '여성의 불임'이 전공. (T. 523-3911)

▲ 김혜경(경영 60입) 동문 "미래보" 보석점 COEX 신관 인터컨티넨탈 2층으로 이전 (T.568-1215-6)

▲ 이정은(영문 84입) 동문은 10여년동안 한국어학당 강사로 일하던 이동문은 최근 부군이 삼척국립대학 교수로 부임하게 되어 사임.

▲ 한영란(기악 75입) 모교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인 한동문의 초청 독주회가 5월 15일 오후 8시 한전아트센터 개관기념으로 열렸다.

▲ 정윤숙(사학 68입) 경제분야 행정직에 일하는 여동문이 매우 희귀한 가운데, 조달청에서 첫 여성 서기관이었던 조동문은 현재 대

천 조달청 비서관 부임 (T.042-481-7186).

▲ 정효경(영문 81입/ ACCENTURE 금융전략팀 부장), 정나영(사회 85입/딜로이트 컨설팅 마케팅담당 이사) 자매는 컨설팅업체에서 행위를 펼치는 자랑스런 여동문들이다.

▲ 권명애(불문 84입) <작가 세계> 편집위원으로 제2회 '젊은 평론가상'을 수상하였다.

▲ 이은애(사회체육 93입) 지난 해 스키 데몬스트레이터 선발대회 여성부에서 1위를 수상하였으며 MBC 스포츠뉴스에서 '스키강좌'를 진행하였다.

▲ 장연화(치의학 87입) 치과의사에서 검사로 변신하여 현재 서울지검 검사로 활약.

▲ 박금재(의학 71입) 산부인과 의사이며, 성폭력에 대해 진료에서 법률자문까지 통합적 지원을 위한 국내 최초의 센터인 '성폭력위기센터'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 조연주(교육 79입,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사무총장) 사단법인 한국우주정보소년단은 과학 전문 청소년단체로서 전국 13지부에 1500개 학교 5만명의 학생회원과 3천명의 지도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 나경혜(성악 85입) 모교 음대 교수로 창립 116주년 대음악회에서 소프라노로 열창. 부친 나인용 교수.

▲ 임준화(작곡 78입/모교 음대 강사) 2000년 한국음악협회 주최

제 3회 한민족 창작음악축전에서 대관성 관현악을 위한 '카르마'로 본상을 수상한 임동문은 4월 23일 예술의 전당에서 작곡발표회를 가졌다. '생명, 삶, 그리고 춤'이라는 주제로 전통음악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무대였다.

▲ 이영혜(의과 64입) 이영혜 방사선과 원장이신 이 동문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하심.

▲ 김성주(신학 75입, 성주인터넷 내서 대표) 동문은 최근 여성전문 인터넷 사이트 (주)아이윌비(www.iwillb.com)의 대표로 취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주)아이윌비는 한글과 컴퓨터, ACCENTURE(전 엔터스컨설팅), 대웅제약, 풀무원, 옥시, 성주 인터넷서널 등 7개사가 전소시용하여 설립되었다.

▲ 김소아(간호 62입) 동문 연세대 정신간호학 주임교수로.

▲ 고일선(간호 74입) 동문 기본간호학 주임교수로.

▲ 오가솔(간호 63입) 동문 아동간호학 주임교수로.

▲ 이태화(간호 82입) 동문 간호행정학 주임교수로.

▲ 유혜선(주거환경 69입) 동문 2000년 12월 14일 대한언론학회로부터 제9회 '대한언론상'을 수상하였다. 유 동문은 지난 95년 이후 KBS 제1라디오의 보컬 프로그램 '전강 365일'에서 전문 분야인 의료, 보건분야를 매스커무니

케이션과 접목해 언론 발전 및 국민 건강 생활에 크게 기여하였다. 유 동문은 생활과학대학 동창회의 홍보위원장을 맡아 동창회 행사에 진행사회를 담당하고 있다.

▲ 안홍석(식품영양 71입) 동문 2001년 1월에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 홍계순(의류환경 71입, 화가) 동문 2000년 현대미술 아카데미 유화전을 가졌다. 홍 동문의 화단 경력은 다음과 같다.

'00 1회 개인전(국립현대미술관 내 아카데미 갤러리)

'98 2회 뉘뉘전(한수경 갤러리)

'96 1회 뉘뉘전(단성갤러리)

'92~00 현대미술아카데미 유화전

▲ 황영주(주거환경 71입, 서예가) 동문 2000년 한국 서예가 협회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현대 서예문인화 공모 대전에서 한글부문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 민계진(식품영양 73입) 동문 2000년 12월,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그룹전을 열었고 이 전시회에서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전공 손경희 교수의 초상화를 작품으로 전시하였다.

▲ 이연숙(주거환경 75입) 동문 2001년 1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하였다. 이연숙 동문(연세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은 2000년 11월에 '인간·지구·문화를 존중하는 창의성'의 주제로 종합적

인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세계대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13일간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최원경(의류환경 박사 4학기/77입) 동문 2001년 1월 13일~19일 사이에 인사동 관훈 미술관에서 'Weaving for the Life'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가졌다.

▲ 진병호(의류환경 85입) 동문 2001년 3월, 미국 Alabama Birmingham에서 개최한 America Collegiate Retailing Association (ACRA)에서 'The Best Paper Award'를 수상, 상금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 황해진(식품영양 85입) 동문 부산 동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정유리(식품영양 90입) 동문 2000년도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 홍성아(식품영양 93입) 동문 제4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 이옥형(식품영양 93입) 동문 2000년도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 강해중(천문대기학) 동문회 회보 기자인 강동문이 아들을 출산함.

▲ 최현숙(사회학 74입) 동문은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미국 씨애틀에서 "국제 약물 피해 최소화"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함.

▲ 변화순(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동문은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

지 유엔 제45차 여성 지위 위원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

▲ 최옥선(교육 59입) 동문 큰 따님 테미양이 영국에서 사회체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서울대에 교수로 취임.

▲ 윤성렬(주생학 69입, 여자동창회 임원) 동문 부친 사망.

▲ 오성혜(음악 75입, 여자동창회 임원) 동문 아들 로빈군이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 6월 3일 출국.

▲ 박은혜(화학 59입) 동문은 5월 10일 모교 개교기념일행사 참석차 한국방문, 모교 총장 및 동문회를 방문하고 연세여자동문들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것을 당부.

▲ 장명경(경제 67입, 여자동창회 임원) 동문 연대 상대 겸임 교수로 취임.

▲ 양은선(사회학 73입) 윤보선 대통령 자부, 시어머니 공덕귀 여사 탄신 90주년 행사를 안국동 자택에서 가짐.

동창회소식

여자 동창회

○ 여동문의 날 열려

5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신록의 연세 캠퍼스에서 여동문의 날 행사를 총장 공관 뜰에서 열렸다. 오월

4째주 토요일은 창립 기념 연례 여동문의 날로, 천화숙 여자동창회 부회장의 지도로 시작하여 이순희 회장 인사말, 김우식 총장님 축사, 장학금 수여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총장 사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불고기 파티는 자연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정취를 발하였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그리운 얼굴들의 여동문들이 모교에서 만나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며, 앞으로 모교의 사랑과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 여자동창회 22년 역사자료집 발간

연세 여자동창회의 발자취가 담긴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연세의 선각 여성들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자각한 30여명의 발기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능력개발, 친목, 정보교환 등의 프로그램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명실공히 4만여 여동문들의 대변인이 된 22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하였다.

- 발행인: 이순희

편집위원장: 이진안

자문위원: 천화숙, 문은희, 윤복자,

임호빈, 주순형, 김희영

편집위원: 김영란, 왕세경, 이연주,

김화진, 지영림, 김미영

○ 여자동창회 총회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알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진안(의생학 67입)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이순희회장은 연세 여성의 훌륭한 면모를 드러내고자 '여자동창회 자료집'을 발간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김우식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자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은총의 땅인 연세를 영광의 땅으로 일구어 나가자'고 강조했고, 윤정숙 여학생처장은 '여성 인력의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천 중문의대 교수인 안명옥동문(의학 73입)의 '중년 여성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특강시간을 가졌다.

음악대학 동창회

○ 삶과 꿈 싱어즈 특별공연

6월 9일(토) 오후 7시에 LG 아트센터와 7월 1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삶과 꿈 싱어즈 특별공연으로 현대 실내 오페라 "마네징"이 한국 초연으로 펼쳐지게 된다. 공연시간은 80분으로 기획,제작에는 여자동창회 회장 및 음대 동창회장은 지낸 신갑순 동문께서 맡고 지휘에는 Piotr Borkowski, 작곡,각색,연출은 Zbigniew Rudzinski가 맡는다. 마네징은 폴란드의 저명한 작가 브르노 슬츠의 원작을 각색하고 작곡한 현대 실내 오페라로서 1981년 바르샤바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유럽과 미주 각국에서 호평아래 수없이 무대에 올려져 온 작품으로 삶과 꿈 싱어즈에 의해 한국 초연이자 동양초연으로 무대에 오른다.(T.318-1726)

간호대학 동창회

○ 2월 12일(월) 2000년도 회계 및 회무 감사발다.

○ 3월 29일(목) 75회 정기 총회 개최하다.

일시: 2001년 3월 29일 오후 5시

장소: 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

참석: 259명

안건: 신입회원 환영

2000년도 사업 및 회계 결산 심의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신입회장단 선출

- 회장 김윤희(64입, 경희대교수)

부회장 이현숙(64입, 삼성제일

병원 간호부장)

감사 임영선(54입, 김인해(74입))

○ 6월 6일(금) 김우식 총장, 조범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 방문하여 신·구 회장 인사 및 간담회 가짐다.

○ 4월 12일(목) 지훈상 영동세브란스 병원장 방문하여 신·구 회장 인사 및 간담회 가짐다.

○ 5월 12일(토)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우수단과대학 동창회로 선정되어 연세대학교 창립 기념일에 노천극장에서 상을 받다.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 2000년 7월 8일(토), 김영희(식품영양 73입, 안양시장 부인) 동문의 초청으로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임원

10명이 안양시 예절교육관에서 다도 및 예절교육을 받았다. 안양시 예절교육관은 안양시장 관사를 개조하여 안양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안양 시민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것은 김영희 동문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의 일부를 실천으로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 2000년 10월 7일(토) 생활과학대학 동창회(회장: 서은경, 식품영양 67입, 영동세브란스 영양과장)에서는 생활과학대학 최이순 기념홀에서 '동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행사 내용으로는 각 학과별 장학금 조성을 위한 바자 및 동문 작품 판매, 각 기념모임을 가졌고 저녁에는 총장공관 뜰에서 기념식과 총회에 이어서 만찬을 가졌고 동문들이 기증한 행운권 추첨도 있었다. 기념식에서는 그간 동창회 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기에 우수기 표창을 수여하였다. 우수기를 수여 받은 학과 및 기는 다음과 같다.

- 의류환경(64입), 식품영양(64입), 주거환경(64입), 의류환경(67입), 식품영양(67입), 주거환경(67입), 식품영양(71입), 아동·가족(77입), 식품영양(78입)

연세 여성 법조인 명부

▲ 예지희(법학 84입 22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판사)

- ▲ 김정선(법학 80입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 ▲ 김진숙(법학 83입 22기) 제주지검
- ▲ 김인숙(법학 85입 23기) 한미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 ▲ 윤우일(법학 85입 26기) 김, 장, 리 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 ▲ 신영재(법학 85입 28기) 우반종합법무법인(변호사)
- ▲ 방정숙(법학 85입 28기) 진주지청(검사)
- ▲ 광란주(법학 86입 24기) 변호사개업
- ▲ 문혜정(법학 87입, 25기) 창원지방법원(판사)
- ▲ 박미리(법학 87입 25기) 인천지방법원(판사)
- ▲ 심연수(법학 87입 27기) 서울법원본원(판사)
- ▲ 이노공(법학 88입 26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검사)
- ▲ 하주현(법학 88입 28기) 태평양법무법인(변호사)
- ▲ 박지영(법학 89입 29기) 서울지검(검사)
- ▲ 장연화(치의학 87입) 서울지검(검사)
- ▲ 윤재남(법학 93입)

하시고, 3월부터 아동학과 이숙현 선생님이 새로운 소장님으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2. 지난 3월과 4월 월례발표회를 진행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월 월례발표회 ●

일 시 : 3월 31일 오전 11시
발표자 : Prof. Tani Barlow
(Women's Studies, Univ. of Washington, U.S.A)
발표주제 : Cultural Studies, Feminism, and Area Studies

● 4월 월례발표회 ●

일 시 : 4월 25일 오후 4시
발표자 : 장미경(연세대 강사, 사회학)
발표주제 : 시민권의 정치와 여성노동운동(1987-1999)

연세대학교 남녀공학 55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 제 : 여성지도자교육
(여성 Career 개발과 대학교육)
주 최 : 여학생처 · 여성연구소
후 원 : 연세여자동창회
일 시 : 2001년 5월 30일 (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 연세대학교 알렌관

● 심포지엄 일정 ●

사 회 : 이숙현 여성연구소장
2:00-2:10
개회사 : 윤정숙 여학생처장
격려사 : 김우식 총장
2:10-2:45
주제1.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정책
(박우전 여성부 대외협력국장)
2:45-3:20
주제2.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전문 인력 (윤여순 LG그룹 경영개발인화원 상무)
3:20-3:40
휴 식
3:40-4:10
발 표. 연세 여학생 지도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개발
(김현미 사회학과 교수)
4:10-5:00
토 론. 남승희 교육인적자원부 여성정책과장,
박은경 세계 YMCA 부회장,
민경찬 교무처장
5:00-
자유토론

여성연구소 소식

1. 지난 2년 동안 소장님으로 계시던 조한혜정 선생님이 2월까지 근무

임원 주소록

자문위원 : 역대 여학생처장, 역대 회장 명단

1대 2대	문은희	59 교육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학기A 109-1204	392-4819	3147-2341
3대	김형순	54 영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루A 8-113	783-4926	
4대	신동식	58 정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A 107-103	533-6675	532-1423
5대	이정현	47 영문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8-20	337-7679	
6대	석현중	58 도서관	경기 성남 분당 서현동 임원A 313-1204	031-703-5437	
7대	김성복	54 사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155-1 신성A 1-1005	337-1394	305-5469
8대 9대	신갑순	56 종교	서울 종로구 평창동 437-2	318-1726	379-7883
10대	임호빈	52 수학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7-7 거명하이츠B-301	325-2929	
11대	이금영	56 수학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 14-303	798-5979	
12대	이상희	54 교육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0-171	387-1334	
13대 14대	유승미	59 정치	서울성북구성북동15-69	762-1722	
15대 16대	이순희	59 생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12-12	337-9650	

역대 여학생처장

심치선	42 사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개원예고	031-713-0722	
윤복자	54 화학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A 6-6-5		412-3425
이영자	59 화학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15 성지마을 건영빌라 1506	2123-3118	031-913-7659
이은혜	60 교육	서울 강남구 입구정동 482 현대A 53-406	2123-3148	515-5995
손경희	54 교육	서울 용산구 아래동 729 남산대입A 110-101	2123-3117	732-4110
윤 선	67 사생	경기도 고양시 일산3동 후곡마을 현대A 306-5-2	2123-3119	031-911-2597
이 영	68 아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신인A 1711-	2123-3150	031-911-5404
양일선	69 사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연선A 14-401	2123-3121	733-4804

연세대학교 각 단과대학 총장과 회장명단 (2001년 5월 현재)

간호대학	김문희	간호64	서울 광진구 중곡4동 147-95 4F	453-2165	961-0312
교육과학대학	최옥선	교육59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1-10	338-1343	
문과대학	지순자	영문57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효창빌라 21-301	594-7103	
법과대학	김희영	법과56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3 신원포 8차 A307-203	599-0090	
사회과학대	신동식	정치58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 A107-103	533-6675	
상경대학	이정선	경영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0 정든마을 동아A104-1401	031-716-0385	3489-9634
생활과학대학	서은경	사생57	강남구 도곡동 명동세브란스		3497-2950
신과대학	최만자	신학5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5-21	583-2721	
음악대학	최영자	교회음악55	서울 은평구 신사동 21-6	303-8706	
의과대학	김용진	의학60	서울 서초구 양곡동 38-11, 김용진내과병원	575-2435	705-6021
이과대학	이정복	물리56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700 대입A 3-905	017-204-8598	
치과대학	김순영	치과학68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32-206	549-0563	
	백일수	치의학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2-1 국민은행 4층 아름다운 치과	031-385-0123	

16대 연세여자동창회 임원

직책	성명	입학/전공	주소	전화번호(지역)	사무실Fax
회장	이순희	56' 생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12-12	337-9650	
부회장	천화숙	62' 사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7-13	031-713-3133	031-750-5100 ①031-750-5229
부회장	이진안	67' 의생	서울 종로구 구기동 66-1	379-7769	
총무	김영란	73' 정의	서울 종로구 혜화동 15-139	747-1268	3455-1104 ①3455-1102
부총무	김미영	81' 정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3차A 103-502	3442-4521	①6254-4521 My5491@chollinet
설외	강경순	73' 사회체	서울 광진구 광정동 위계빌A 25-403	447-0220	
부설외	윤영옥	72' 간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A 501-1201	2649-3671	361-8116
문화	장명	67' 경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차A 101-903	573-5171	①573-3354
부문화	이연주	79' 정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현대차A 224-1104	448-3458	①448-3458 bele60@hanmail.net
사업	지영림	82' 법학	서울 종로구 육인동 47-392	722-9666	313-4272 ①722-1059 yeromio@nownet.net
부사업	오성혜	75' 음악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주공A 1409-708	932-1939	931-8893 sunghee@hinet.net
법규	주순형	61' 물리	서대문구 연희23-4	324-0744	
부법규	이연경	79' 법학	경기 고양시 일산 후곡마을 503-101	031-916-7528	033-240-1342
회계	변혜란	76' 수학	서울 은평구 용암동 금호A 104-901	2123-2719	359-7440 hrbyun@apiryonelackr
출판	왕세경	73' 정의	용인시 수지읍 봉신A 101-701	031-264-0727	576-0991
서기	윤성열	69' 주생	경기 고양시 장항동 794-6	031-908-2700	
부서기	이인호	82' 영문	경기 고양시 일산 주엽동 보성A 1508-301	031-922-0036	396-0585
감사	김희영	56' 법학	서초구 잠원동 신반모 8차A 307-203	599-0090	①599-0090
감사	유영희	66' 주생	서울 마포구 상산2동 200-282	373-2668	

16대 연세여자동창회위원장

직책	성명	입학/전공	주소	전화번호(지역)	사무실Fax
기금 및 재전 운영 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62' 수학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1-2	334-9789	①322-8990
정관 개선	위원장 김용진	66' 의학	성동구 옥수동 극동A 3-7022	296-4061	
보안 위원회	위원장 안영옥	73' 의학	서초구 압곡동 38-11	575-6898	705-6021
연세 여자동창회 20년사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진안	67' 의생	종로구 구기동 66-1	379-7769	3486-3668
회무위원회	위원장 김희진	81' 신방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51-104	544-6150	031-750-5518
특별사업위원회 (WVC, WS)	위원장 정국강	60' 수학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A 5-911	3472-8241	
언론분과위원회	위원장 주순형	61' 물리	서대문구 연희동 123-4	324-0744	
	위원장 추애주	65' 영문	강남구 청담동 115-17 호원빌라 E2	517-8082	
	위원장 서지현	83' 전산	마포구 동교동 LG헬리스5층(주)비추일역		3140-1000
	위원장 김문라	63' 영문	KBS해설위원		781-4015
	위원장 김혜린	73' 신방	강남구 압구정동 우성7차A 115-705	445-2654	727-0022

16대 연세여자 동창회 이사

이름	입학/전공	주소	전화번호(지역)	사무실 / FAX / E-Mail
문과대	지순자	57' 영문	서초구 반포4동 85-18 효성빌라21-301	594-7103
	한혜경	59' 사학	서초구 1486-17 청광아트빌라 202	588-8125
	최우숙	56' 영문	서대문구 홍은3동 265-428	391-0130
	김경희	50' 국문	서대문구 창천동 500-11	334-1737
	김정필	59' 사학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후곡마을 907-403	031-916-6337
	정명환	56' 사학	강남구 도곡동 동신A 마-201	3461-7878
상경대	우남희	67' 영문	강동구 상1동 삼성빌라 8-102	481-1397
	이정신	81' 경영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 동아A 104-1401	031-716-0395
	이은경	81' 경영	경기 김포군 김포리 신화A 101-1104	031-986-4749
	한현주	81' 경영	송파구 잠실7동 우성A 29-905	415-7876
	최수미	89' 경영	서초구 방배3동 신동아A 1-1005	584-2068
	현소은	80' 영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202-305	545-4368
이과대	이정복	56' 물리	서대문구 연희3동 대림A 3-905	337-8598
	정학자	59' 생물	강남구 일원동 한솔A	303-105
	김영환	64' 생물	서초구 서초3동 현대하이츠빌라 가-310	585-8806
	오정신	56' 수학	성북구 안암동 102-67	925-0220
	유의경	60' 화학	서초구 양재동 120-8	557-4127
	김현선	59' 생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건영A119-406	032-815-2589
음과대	최영자	55' 교육	은평구 신사동 21-6	303-8706
	김정아	64' 가학	서초구 서초동 1003-53 우성빌라지 1동	581-2735
	이성자	64' 상학	강남구 청담동 삼익A 9-301	544-7787
	박태경	66' 교육	경기 고양시 마두동 김촌마을 한신A209-802	031-903-1831
	백재영	68' 가학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신수촌A 11-702	417-9147
	송하련	68' 가학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 35-207	544-9050
의과대	이영희	68' 가학	성북구 성북2동 성북빌라지 E-1	782-7793
	김준희	85' 작곡	서초구 서초동 한신3차A 25-305	599-0102
	김용진	66' 의학	서초구 압곡동 38-11	575-2435
	정윤순	60' 의학	영등포구 여의도동 창미A-505	782-2975
	안영옥	73' 의학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양A 19-403	782-2975
	이동화	73' 의학	강남구 대치동 청암빌라지 801	565-7427
사회과학대	박계숙	61' 의학	서초구 방배동 신상호A 라-804	533-1233
	신동식	58' 정의	서초구 반포본동 961 구반포A 107-103	533-6675
	한정현	73' 정의	서초구 구반포A 76-203	533-1312
	신미정	78' 정의	성동구 행당2동 한진타운A 114-2004	6212-6029
	추교석	78' 신방	노원구 상계2동 중앙하이츠 208-1502	
	김희진	81' 신방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51-104	544-6150
법과대	차이경	81' 정의	경기 고양시 일산 주엽동 문촌마을 308-401	031-918-4022
	김희영	56' 법학	서초구 잠원동 신반모8차A 307-203	599-0090
	이화숙	65' 법학	강남구 대치동 선경A 3-608	567-4664
	주동균	67' 법학	서초구 서초4동 진흥A 8-1105	
	이인영	79' 법학	경기 고양시 일산동 후곡마을 503-101	031-916-7528
	관영애	72' 법학	인천시 서구 마전동 동남A 101-402	032-561-0399
생활과학대	지영림	82' 법학	종로구 육인동 47-392	722-9666
	이희자	71' 식영	종로구 종화동 291-60 (16/1)	435-9898
	서은경	67' 식영	강남구 도곡동 영등 세브란스 병원 영림과	3497-2950
	오창희	67' 식영	강남구 도곡동 465 개포4차 우성A 2-607	578-5212
	김장애	67' 주생	강남구 도곡동 역삼역키A 107-1102	3483-1239
	김영희	73' 식영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 현대A	031-383-0673

	이름	입학/전공	주 소	전화번호(지역)	사무실 / FAX / E-Mail
생활 과학대	이인규	67 주생	강남구 삼성동 상아A 5-803		
	자인경	72 주생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성A E-605	786-2911	
치 과 대	강순영	68 치의	강남구 청담동 23 현대상가 2F 강순영치과		545-6783
	강승희	70 치의	강남구 역삼동 785-3 수선B 202 이준치과		557-9782
	김진	72 치의	서대문구 신촌 134 연세치대 구강병리학과		361-5090
	최승림	73 치의	서초구 잠원동 7-19 반포소방문 3-30 최승림치과		534-2808
	백일수	74 치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2-1 국민은행 456F		031-385-0123
	김영원	76 치의	이름다문치과		031-385-0123
신 과 대	최만자	62 신학	서초구 서초동 1565-21	583-2721	312-2302-3
	정복자	72 신학	송파구 방이동 율림파신수촌A	302-603	402-3526
	정윤미	76 신학	경기 군포시 신원 대림 솔거A 736-1204		031-397-2206
	윤정애	72 신학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A 114-408	540-1705	
교 육 과 학 대	최옥선	59 교육	서대문구 연희3동 91-10	338-1343	
	조연주	79 교육	종로구 신로2가 1-103 진학기획당4층 한국유주정보소년단	535-1902	739-6369
	강승혜	80 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아학당 10343	388-3306	
	한정란	83 교육	양천구 목6동 한신A 113-1003 6739-1910		361-4480
	윤정미	75 사회체	서대문구 북가2동 3-53	372-3581	
	전인영	79 사회체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화랑A 3-105	782-2777	
	정진희	83 사회체	강동구 영일동 삼환A 102-703	427-9187	
	정승진	82 교육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풍동신A 1904-203	3644-8678	
간 호 대	김영자	59 간호	동작구 상도동 764-3	826-1314	
	김윤희	64 간호	광진구 중곡4동 147-95 4F	453-2185	961-0312
	황경자	67 간호	신촌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599-7263	361-6760
	김정자	64 간호	영등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3473-5244	3497-2830
	문경희	73 간호	도봉구 창동 347 주공A 321-207	997-5048	361-6463
공과대	조병남	71 요입			
	조경화	79 요입	마포구 공덕동 111-25	712-0914	042-481-5767
	박선의	87 건축			

연세여성언론인회

여성언론인회 직위	성명	전공	입학	졸업	직장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송현숙	문과 영어영문학	1991	1995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3701-1184
	임영주	문과 사회학	1995	2000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3701-1142
	최만영	문과 영어영문학	1995	2000	경향신문	편집국 대중문화팀	기자	3701-1227
	한윤정	문과 영어영문학	1996	1999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3701-1213
	김수정	교육과학 교육학	1993	1997	국민일보	편집부	기자	7819-313
	이영미	문과 노어노문학	1993	1995	국민일보	교육생활부	기자	7819-182
	이은경	문과 사학	1980	1984	국민일보	교육생활부	부장	7819-161
	최현수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1981	1985	국민일보	정치부	기자	7819-312
	강선임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2	1986	대한매일	뉴스피플팀	기자	2000-9264
	권해정	문과 영어영문학	1985	1989	대한매일	편집팀	기자	2000-5132
	김미경	문과 심리학	1993	1998	대한매일	디지털팀	기자	2000-9203
	김소연	문과 영어영문학	1993	1997	대한매일	편집팀	기자	2000-9137
이사	신연숙	문과 사학	1976	1980	대한매일		편집위원	2000-9122
	안지현	문과 영어영문학	1985	1989	대한매일	경제팀	기자	2000-9164
	이동미	문과 노어노문학	1994	1999	대한매일	국제부	기자	2000-9233
	이송하	문과 국어국문학	1995	2000	대한매일	문화팀		2000-9193
	이순녀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9	1993	대한매일	사회팀	기자	2000-9171
	이진아	문과 영어영문학	1994	1998	대한매일	출판국 국제부	기자	2000-9265
이사	이한숙	장법 신문방송학	1973	1977	대한매일	사입국	부국장	2000-9721
	주현진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94	1998	대한매일	경제팀	기자	2000-9152
	계수미	법과 법학	1982	1986	동아일보	여성동아부	기자	361-0991
	김한미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6	1990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기자	361-0916
	서영아	문과 영어영문학	1984	1989	동아일보	이슈부	기자	2020-0404
	이영미	문과 영어영문학	1982	1986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장미경	문과 독어독문학	1983	1987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361-0269
	이지은	국문과	1996			여성동아부	기자	361-0995
	심윤희	문과 국어국문학	1990	1994	매일경제신문	유통부	기자	2000-2391
	정혜진	성경 응용통계학	1994	1999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증권부	기자	2000-2031
	최미숙	문과 도서관학	1982	1986	매일경제신문	뉴미디어국 조사부	기자	2000-2172
	김주영	문과 영어영문학	1988	1992	매일경제신문	영국연수중	기자	2626-238
	김지수	문과 사학	1988	1992	매일경제신문	편집부	기자	2626-152
	김경화	생활과학 생활과학부	1996	2000	문화방송	아나운서2팀	아나운서	789-3497
	문소현	문과 노어노문학	1992	1997	문화방송	문화부	기자	789-2593
	박선영	문과 영어영문학	1988	1992	문화방송	국제부	기자	789-2543
	박수현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3	1987	문화방송	라디오국 제작팀	PD	789-3445
	시화경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7	1991	문화방송	예능국 예능1팀	PD	789-3295
	이모현	문과 영어영문학	1986	1990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PD	789-3323
	이은주	교육과학 교육학	1988	1992	문화방송	경제부	기자	789-2483
	이문정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92	1997	문화방송	드라마국	PD	789-3253
	이은주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2	1986	문화방송	라디오국 R편성기획팀	PD	789-3444
	이주연	문과 국어국문학	1992	1996	문화방송	아나운서2팀	아나운서	789-3494
홍보	정혜정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4	1988	문화방송	아나운서국 아나운서팀	차장대우	789-3497
	조희진	문과 영어영문학	1990	1994	문화방송	예능국 예능4팀	PD	789-3268
	차미연	공과 생명공학과	1994	1998	문화방송	아나운서2팀	아나운서	789-3486
	이보영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3	1987	문화방송	편성국 편성기획팀	PD	789-3144
	김신미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93	1997	문화일보	사회2부	기자	3701-5157

여성언론인회 직위	성명	전공	입학	졸업	직장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김연수	가정 아동학	1982	1986	문화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3701-5205
	신세미	장법 신문방송학	1975	1979	문화일보	생활과학부	차장	3701-5305
	이미숙	사법 교육학	1981	1985	문화일보	편집국 정치부	기자	3701-5107
	정혜승	문과 노어노문학	1990	1994	문화일보	국재부	기자	3701-5161
	신경립	문과 영어영문학	1992	1996	서울경제신문	국재부	기자	724-2467
	윤혜경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1995	2000	서울경제신문	생활건강부	기자	724-2477
	이효영	문과 불어불문학	1986	1990	서울경제신문	생활건강부	기자	724-2477
영예회장	신동식	장법 정치외교학	1968	1962	성공회대학교	교수	2001-7547	
	김지원	문과 국어국문학	1994	1998	스포츠조선	체육부	기자	724-6854
	이수연	문과 문헌정보학	1995	2000	스포츠조선	아구부	기자	724-6857
	이승민	상경 경제학	1989	1993	스포츠조선	일본특파원		
	이화순	문과 독어독문학	1980	1984	스포츠조선	사회부	차장	724-6862
	김현숙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91	1995	조선일보	편집부	기자	724-5230
	손정미	문과 영어영문학	1985	1989	조선일보	국재부	기자	724-5328
	육은주	문과 영어영문학	1985	1989	조선일보	여성조선	기자	724-6143
	이규현	문과 국어국문학	1991	1996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724-5288
	이미경	장법 정치외교학	1980	1984	조선일보	출판국 단행본팀	기자	724-6193
	정재연	문과 영어영문학	1991	1995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724-5373
	최혜정	문과 사학	1978	1982	조선일보	여성조선	기자	724-6142
	황성혜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91	1995	조선일보	주간조선	기자	724-6127
	강혜란	문과 영어영문학		1995	중앙일보	편집부	기자	751-5206
	권수경	문과 국어국문학	1991	1995	중앙일보	편집부	기자	751-5209
	가은인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1996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751-5524
	김정수	문과 영어영문학	1988	1993	중앙일보	국재부	기자	751-5418
	김 형	가정 식생활학	1976	1981	중앙일보	조사전문위원		751-5225
	박해민	문과 영어영문학		1995	중앙일보	정보과학부	기자	751-5621
	안혜리	문과 사회학	1990	1994	중앙일보	편집국 문화부	기자	751-5596
사무국장	홍은희	장법 신문방송학	1974	1978	중앙일보	편집위원		751-5175
	홍주연	생활과학 아동학	1991	1995	중앙일보	편집국 기획취재팀	기자	751-5221
	강신혜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4	1988	중앙M&B	세씨	기자	2000-6121
	김정아	문과 영어영문학	1984	1988	중앙M&B	라벨르	기자	2000-6163
	박성혜	문과 사학	1986	1993	중앙M&B	다스타일	기자	2000-6288
	신윤영	문과 인문학부	1996	2000	중앙M&B	라벨르	기자	2000-6108
	이강희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4	1988	중앙M&B	키키	기자	2000-6141
	이숙은	문과 중어중문학	1985	1989	중앙M&B	여성중앙	기자	2000-6075
	조주희	문과 국어국문학	1991	1996	중앙M&B	다스타일	기자	2000-6131
	이지연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8	1992	중앙M&B 닷컴		기자	563-6800
부회장	김혜원	장법 신문방송학	1973	1977	코리아헤럴드	편집위원		727-0022
	배은주	문과 영어영문학	1991	1995	코리아헤럴드	문화부	기자	727-0214
	김미리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1995	2000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360-4171
서기	한은자	문과 도서관학	1981	1985	한국경제신문	조사자료부	차장	3604-344
	박성완	문과 영어영문학	1989	1994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연수중)	기자	3604-176
회장	김윤라	문과 영어영문학	1964	1968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해설위원	781-4205
	김혜래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3	1987	한국방송공사	경제부	기자	781-4226
	류송희	문과 독어독문학	1991	1995	한국방송공사	지역국	PD	
	문소신	문과 불어불문학	1992	1997	한국방송공사	TV국	PD	781-3574

여성언론인회 직위	성명	전공	입학	졸업	직장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박서현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5	1989	한국방송공사	편성실	PD	781-3143
	신성원	문과 영어영문학	1993	1997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	781-3817
부회장	유혜선	가정 주생활학	1969	1973	한국방송공사		진행자	781-1000
	이미경	문과 도서관학	1981	1985	한국방송공사	음향자료실		781-2451
	이미경	가정 식생활학	1979	1983	한국방송공사	편성실	PD	781-3183
	이정민	이과 천문대기과학	1991	1995	한국방송공사		가상문케스터	
	이정옥	문과 불어불문학	1976	1980	한국방송공사	뉴미디어센터 뉴미디어정책	부주관	781-2850
	이한숙	문과 심리학	1985	1989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781-3818
	임수민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1986	1990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781-3824
	전숙영	장법 정치외교학	1973	1978	한국방송공사	위성제작국	차장	781-1012
	정세진	문과 영어영문학	1992	1996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781-3818
	정용실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7	1991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781-3817
이사	최준애	문과 사회학	1973	1977	한국방송공사	경제부	부장	781-4170
	한 옥	가정 외생활학	1972	1976	한국방송공사	상의명가실	차장	781-3033
	황현정	문과 영어영문학	1988	1992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781-3815
	김영신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92	1996	한국방송공사	T위성제작국	PD	781-1025
총무	송영주	문과 도서관학	1981	1984	한국일보	문화부	차장	724-2319
부회장	최성자	문과 사학	1972	1976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724-2254
	최지향	문과 사학	1995	2000	한국일보	편집국 인터넷부	기자	724-2418
	김한주	신과 사회사업학	1989	1993	헤스트중앙	코스모폴리탄	기자	777-3297
	최윤정	문과 영어영문학	1990	1994	헤스트중앙	코스모폴리탄	기자	777-1973
	김경은	문과 영어영문학	1986	1990	EBS	편성기획팀		2189-7087
	심예원	교육과학 교육학	1991	1995	EBS	TV제작2국 어린이팀		526-2135
	안소진	문과 영어영문학	1991	1995	EBS	편성기획팀		2189-7074
	이유자	문과 중어중문학	1990	1994	EBS	편성기획팀		2189-7089
	이지연	문과 노어노문학	1993	1997	EBS	문화팀		526-1653
	정경란	문과 불어불문학	1985	1989	EBS	어린이팀		526-2136
	정지은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6	1990	EBS	어린이팀	PD	526-2143
	최미자	교육과학 교육학	1983	1987	EBS	R교양팀		522-8020#508
	최혜경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2	1986	EBS	임원실	팀장	2189-7002
	한진숙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6	1990	EBS	R교양팀		526-2045
	김경희	문과 불어불문학	1991	1995	SBS	보도본부 사회부	기자	369-2151
	김소원	문과 심리학	1991	1995	SBS		아나운서	369-1541
	이윤경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92	1997	SBS	라디오국	PD	369-1927
	한수진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1988	1992	SBS	보도본부 국재부	기자	369-2222
	한송희	생활과학 아동학	1994	1998	SBS	보도본부 사회부	기자	369-2151

대학교수명단

이름	전공	출입년도	직장명	직위	직장연락처	주택
양계봉	문과 도서관학	1971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031-280-3777	574-1711
김미화	음악 성악학	1971	강남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031-2803-500	
김은경	가정 식생활학	1984	강릉대학교 식품과학과	교수	033-640-2336	428-5520
이혜경	문과 영어영문학	1974	강릉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과	교수	033-640-2117	033-643-6406
박양자	문과 철학	1974	강릉대학교 철학과	교수	033-640-2138	
권오정	가정 주생활학	1986	건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450-3780	598-3968
신영숙	가정 주생활학	1970	건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043-40-3882	470-4610
재경숙	가정 아동학	1981	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055-49-2319	055-82-0651
임은희	음악 가락학	1977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055-751-5896	
서심미	음악 가락학	1970	경상대학교 음악대	교수	051-622-5331	051-621-9804
홍혜선	음악 교회음악학	1978	경상전문대학교 생활음악과	교수		
천화숙	사학	1966	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031-750-5100	031-713-3133
김희진	신문방송	1966	경원대학교 신문방송	교수	031-750-5518	544-6150
이영미	가정 식생활학	1980	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031-750-5971	572-2998
김춘경	가정 아동학	1982	경인여자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031-547-8625	031-551-1793
권순경	이공 화학공학	1982	경희간호전문대학	교수	968-4805	966-1542
권인수	음악 교회음악학	1968	계명대학교	교수	053620-2260	713-9116
김소인	간호 간호학	196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920-6230	537-2245
류은순	가정 식생활학	1980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051-414-6063	031-972-3484
김갑영	가정 식생활학	1970	공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041-53-5687	298-7393
한지현	문과 도서관학	1966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940-5365	599-1769
육경희	가정 아동학	1982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062-670-2587	062-652-2883
고영희	가정 주생활학	1984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062-672-2600	062-368-5350
유옥순	가정 주생활학	1970	군산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063-60-1563	063-224-5747
변인수	문과 독어독문학	1976	대구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053-850-6035	053-784-9396
배정숙	가정 의생활학	1976	대구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053-353-3181	053-755-3824
이미숙	가정 식생활학	1986	대원공과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043-649-3105	
김광경	가정 의생활학	1971	대전실업전문대학 의상과	교수	042-623-2541	532-9977
한경숙	문과 독어독문학	1976	덕성여자대학교 독문과	교수	901-8213	955-1758
유재옥	문과 도서관학	1972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901-8294	591-5220
박혜영	문과 불어불문학	1977	덕성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901-8204	965-1087
윤정분	문과 사학	1977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901-8244	954-1607
정미실	가정 의생활학	1981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054-770-2268	391-1626
이혜란	가정 아동학	1981	동남보건전문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472-1372
우남희	영문	1971	동덕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940-4112	481-1397
현소은	상경 응용통계학	1984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40-4427	545-4368
김영옥	가정 식생활학	1973	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940-4463	544-5066
이종희	가정 아동학	1983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940-4494	948-1590
강경화	문과 영어영문학	1973	동덕여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940-4354	598-7319
태선영	문과 불어불문학	1979	동아대학교 불문학과	부교수	051-200-7121	051-202-0166
황선희	신과 신학	1977	동주여자전문대학	교수	051-200-3233	
김한주	가정 아동학	1979	동주여자전문대학 유아교육	교수	051-200-3234	051-216-1241
박용관	이과 체육학	1982	동해전문대학 체육교육학과	교수	033-521-9901	
김복순	문과 국어국문학	1980	명지대학교 국문과	교수	031-30-6230	031-215-6097
김신희	문과 국어국문학	1970	목원대학교 국문과	교수	042-220-6114	587-9530
이영희	가정 식생활학	1979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042-520-5423	033-262-4705

이름	전공	출입년도	직장명	직위	직장연락처	주택
신현옥	가정 식생활학	1975	배화여자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399-0771	549-5486
진혜숙	정법 정치외교학	1960	배화여자전문대학 교양과	교수	399-0801	745-2145
이경순	가정 의생활학	1973	배화여자전문대학 의상학과	교수	399-0789	302-8006
유가숙	문과 교육학	1974	부산대학교	교수		
조성희	이공 건축공학	1980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	교수	051-510-2845	051-56-7461
정계숙	가정 아동학	1977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51-510-0171	051-752-0563
정영자	문과 국어국문학	1964	부산여자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051-305-1001	
서혜련	문과 도서관학	1978	부산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051-309-5290	051-514-0893
손현숙	문과 사학	1977	부산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051-309-5365	
이명혜	가정 식생활학	1978	부산여자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051-867-4704	051-82-3779
정현숙	가정 아동학	1982	상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2646-3218
이진분	문과 교육학	1969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398-5114	354-9650
오영희	가정 의생활학	1970	상명대학교 섬유디자인과	교수	041-550-5398	533-3859
최현숙	문과 불어불문학	1978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33-730-0282	3216-3057
오혜숙	가정 식생활학	1979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033-730-0498	336-1107
최운정	가정 식생활학	1976	서강실업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062-56-0191	062-54-1598
김혜란	영문과	198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80-6465	523-7832
염송화	이공 수학	1966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972-1431#262	453-8228
정화자	문과 도서관학	1971	서울산업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교수	970-6716	593-6321
백금옥	음악 교회음악학	1976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032-612-2551	366-0440
이소연	가정 주생활학	1973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032-612-2551	613-0616
구본영	문과 도서관학	1962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970-5542	974-6864
유사리	문과 도서관학	1983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970-5545	935-7270
조경혜	이공 화학	1973	서울여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970-5220	537-2065
이호숙	이공 화학	1973	서울여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972-2031	903-9267
이명신	음악 성악학	1979	서울장로교신학대학교	교수		
위영희	가정 아동학	1977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43-61-8331	503-8066
김기옥	가정 주생활학	1977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762-5021	031-702-6767
이선경	문과 불어불문학	1978	성신여자대학교 불문학과	교수	920-7095	031-38-7770
안홍석	가정 식생활학	1975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920-7204	502-5739
김재인	문과 영어영문학	1971	성신여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920-7081	647-0440
장미화	문과 영어영문학	1989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920-7114	
이숙재	가정 주생활학	1973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920-7236	566-9939
김미란	문과 국어국문학	1975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031-220-2383	031-257-0546
문순옥	이공 식품공학	1975	수원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	031-220-2289	780-1621
전애리	음악 성악학	1963	수원여자대학교 음악과	조교수		
최옥순	간호 간호학	1973	수원여자전문대학 간호과	교수	031-232-6251	584-5666
고유미	간호 간호학	1973	수원여자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	031-290-8000	566-6853
남혜원	가정 식생활학	1983	수원여자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031-232-6251	536-7400
이춘실	문과 도서관학	1975	숙명여자대학교 정보과학부	교수	710-9372	793-4419
이주원	가정 주생활학	1973	송의여자전문대학 의상학과	교수	773-2600	387-9652
김영옥	문과 도서관학	1968	송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학과	교수	773-2600	977-6468
홍길희	가정 아동학	1981	신홍실업전문대학	조교수	031-873-3630	031-86-5344
노영희	이공 생물학	1973	신홍전문대학 임상병리과	교수	031-870-3401	031-876-9722
주일로	의과 의학	1967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과	교수	031-219-5061	031-701-6886
소외영	의과 의학	1979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일반의과	교수	031-219-5202	031-701-4356

이름	전공	출입년도	직장명	직위	직장연락처	주택
문해원	의과 의학	1983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031-219-2114	971-0378
임인경	의과 의학	1978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	031-219-5051	571-1864
김영숙	공과 식품공학	1981	영신전문대학 전통조리과	교수	055-370-8146	051-758-5563
이태화	간호 간호학	1986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조교수		
고일선	간호 간호학	1978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본간호학교실	교수	361-8154	031-908-0108
김소선	간호 간호학	1975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성인간호학교실	교수	361-8151	396-2623
김조자	간호 간호학	1964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성인간호학교실	과, 명예교수	361-8100	335-6729
조원정	간호 간호학	196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지역사회간호학교실	교수	361-8148	031-911-4295
손홍규	공과 토목공학	1985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건축	조교수		462-6733
육동원	이공 체육학	1985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학과	조교수		783-3984
연문희	문과 영어영문학	1966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123-3175	659-6371
신영희	문과 교육학	1972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2123-3178	534-5055
곽동순	음악 교회음악학	1972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2123-3028	334-1893
한영란	음악 가악학	1979	연세대학교 가악과	부교수	2123-3607	325-2978
전해경	이과 천문기상학	1985	연세대학교 대기과학전공	부교수	2123-2892	031-902-4282
지광신	문과 독어독문학	1979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전공	부교수	2123-2335	649-5427
장영미	문과 도서관학	1971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2123-2409	364-1520
장수경	이공 물리학	1979	연세대학교 물리학전공	교수	2123-2615	653-5472
이정	문과 불어불문학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전공	교수	2123-2347	324-6897
전수연	문과 사학	1980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2123-2381	335-7483
이순희	이공 생물학	1964	연세대학교 생물학전공	교수	2123-2656	762-9435
김영인	가정 의생활학	1979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전공	부교수	2123-3105	305-4425
곽동경	가정 식생활학	1975	연세대학교 식품영양전공	교수	2123-3120	26418-4090
윤선	가정 식생활학	1971	연세대학교 식품영양전공	교수	2123-3119	031-911-2597
이종호	가정 식생활학	1979	연세대학교 식품영양전공	부교수	2123-3122	793-8795
박태선	가정 식생활학	1983	연세대학교 식품영양전공	부교수	2123-3123	543-9866
이명	가정 의생활학	197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교수	2123-3150	031-911-5404
박경자	가정 아동학	1979	연세대학교 아동가족전공	부교수	2123-3152	554-2302
이숙현	문과 사회학	1978	연세대학교 아동가족전공	부교수	2123-3151	535-9432
김영순	가정 아동학	198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전공	조교수	2123-3153	376-6248
신경숙	문과 영어영문학	1982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전공	조교수	2123-2320	403-1525
최인홍	의과 의학	198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부교수	361-5283	643-8620
남궁란	의과 의학	197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부교수	361-5525	643-4056
이해연	의과 의학	198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361-5171	877-1154
김영희	이공 생물학	198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조교수	361-5173	561-2289
천종숙	가정 의생활학	1979	연세대학교 의류환경전공	부교수	2123-3107	591-6449
고애란	가정 의생활학	1981	연세대학교 의류환경전공	부교수	2123-3106	352-9608
이주현	가정 의생활학	1983	연세대학교 의류환경전공	조교수	2123-3108	643-2038
이진해	음악 작곡학	1968	연세대학교 작곡과	교수	2123-3080	031-977-6446
임지선	음악 작곡학	1982	연세대학교 작곡과	조교수	2123-3083	648-3664
변해란	이공 수학	1980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전공	부교수	2123-2719	031-970-8279
윤창숙	가정 주생활학	1972	연세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과, 명예교수	2123-3132	790-0198
하미경	가정 주생활학	1981	연세대학교 주거환경전공	부교수	2123-3135	307-3172
이연숙	가정 주생활학	1977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2123-3133	305-6274
백봉자	문과 국어국문학	198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수	2123-3470	323-1839
정현주	의과 의학	1981	영동세브란스병원 병리학	부교수	3497-3543	821-9880

이름	전공	출입년도	직장명	직위	직장연락처	주택
배영희	가정 식생활학	1982	오산공업전문대학 전통조리과	교수	031-72-1181	
김선중	가정 주생활학	1977	울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055-78-2362	055-77-5478
홍순명	가정 식생활학	1977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055-78-2374	055-77-2807
홍승아	문과 사회학	1984	울산전문대학 여성교육과	교수	052-279-3231	052-266-8412
박희순	이공 전기공학	1972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063-50-6701	063-52-2805
최영순	가정 주생활학	1972	인제대학교 가정관리	교수	051-463-1341	055-21-3786
최재순	가정 주생활학	1973	인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032-770-6252	3443-7071
장영애	가정 아동학	1979	인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032-760-8168	477-7424
김영애	문과 사학	1961	인제전문대학 교양학과	교수	032-766-5021	784-0002
조숙자	신과 신학	1966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445-3101	716-2006
이금실	가정 의생활학	1976	장로대학교 의상과	교수		408-7130
김미희	가정 주생활학	1980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062-520-6942	502-3774
박선희	생활과학 주생활학	1976	전북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063-70-2823	063-77-3076
배순자	문과 도서관학	1970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063-220-2233	031-965-4109
김정희	음악 성악학	1980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064-55-6141
김순경	문과 불어불문학	1976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820-5173	534-1863
윤현숙	가정 식생활학	1968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055-68-7482	055-64-0054
신희주	음악 가악학	1977	청주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043-229-8618	599-4082
윤순	가정 식생활학	1974	청주대학교 유아중문학과	교수	043-229-8332	043-294-8727
김수연	음악 가악학	1984	충신대학교	교수		594-8920
이정숙	음악 가악학	1989	충화대학교 음악과	교수		567-2520
김영현	간호 간호학	1982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033-259-9078	033-254-9572
장수경	가정 의생활학	1979	충남대학교 의생활과	교수	042-821-5114	042-861-0872
박순희	음악 작곡학	1975	충남대학교 작곡과	교수	842-863-7927	042-821-6929
박경옥	가정 주생활학	1981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043-261-2743	665-2978
김춘실	문과 사학	1976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	교수	043-261-3207	042-522-6113
김영희	이공 수학	1975	충북대학교 수학과	교수	043-261-2248	043-263-8414
이승은	이공 수학	1978	충북대학교 수학과	교수	043-61-2246	043-62-0579
이덕화	가정 식생활학	1974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031-655-8701	031-618-3424
최성옥	음악 교회음악학	1980	명지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031-655-8701/5	584-5615
성숙진	가정 식생활학	1981	한국신학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031-370-6705	572-9778
최목화	가정 주생활학	1977	한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042-629-7114	042-624-4982
정민	간호 간호학	1981	한라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	064-741-7657	064-753-1730
문영신	문과 도서관학	1981	한림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033-58-1811	
이인영	법학	1983	한림대학 법학부	조교수	033-240-1342	031-916-7528
신원선	가정 식생활학	1986	한림대학교 식생활과	교수	064-58-1000	031-49-9167
김혜경	이공 생화학	1975	한서대학교	교수	041-660-1454	031-264-3821
서은경	문과 도서관학	1982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760-4084	965-3786
전문희	문과 영어영문학	1974	한양여자대학 영어과	교수	2290-2282	325-6591
이은자	음악 교회음악학	1974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3472-6059
정승은	간호 간호학	1986	해진전문대학 간호과	조교수	041-30-5295	
유은순	가정 식생활학	1983	호남대학교 화학과	조교수	062-940-5564	364-8159
조성연	가정 아동학	1983	호서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041-540-5114	041-559-7639

연세백양 제 8 집

동문동정

- 윤복자(화학 54입) 모교 생활과학대학 명예교수인 윤동문이 한국 Fulbright동문 회장에 선출됐다.
- 이남숙(법학 55입) 새생명교회 목사 (T. 3461-1500)
- 최우숙(영문 56입) 동문의 부군 장재식(서대문을) 국회의원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입각.
- 오혜명(영문 61입, 수필가) 무의탁 노인들의 '평화의 집' 원장으로서 봉사하는 삶 (T. 031-356-4530)
- 이희자(보성재면 대표, 식영 71입) 맛있는 냉면 시판중 (T. 2208-2000).
- 구안숙(영문 73입, 교보생명) 금융사업담당 상무로.
- 신연숙(사학 76입) 대한매일신보사 편집위원(부국장급)
- 공지영(영문 81입) 소설가인 공동문이 2월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로 제7회 「21세기 문학상」을 수상
- 조미옥(법학 87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여자동창회 장학사업회

1. 1구좌 일만원으로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온라인 구좌 번호 : 시티은행 12-32-133449(김미영)

광고

편집후기

편집을 마칠때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연세사랑에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는 선후배의 귀한 글에 늘 감사드린다. 4만여 구슬들도 꿰어야 보석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연세백양」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모교 연세를 떠 났지만 큰 기둥들임을 확인하는 자리되게 하소서!!! (왕세경)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얻은 보람이 많다. 인터뷰를 핑계로 여러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 분들의 글을 읽으며, 내 생활을 반성하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백양은 내가 연세동문임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 준 고마운 기회였다. (고성민)

성경 말씀 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을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연세대를 사랑하시고 여자동창회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 동문들의 힘으로 「연세백양」이 탄생했다. 조금 밖에 도와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한편으론 미려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낀다. (손정분)

평생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 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님께서 내시는 회비는 장학사업과 여동문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회비

년회비 20,000원
평생회비 200,000원(년회비가 면제되며 분할납부가 가능함.)

2. 납부방법

한빛은행 온라인 구좌
214-039871-01-001 연세여동창회

삶과꿈 싱어즈 기획 공연

현대 실내 오페라 <마네킹>

한국초연(80분)



기획·제작 신갑순



작곡·연출 루진스키



지휘 보르코프스키

anekiny
마네킹

원작 | Bruno Schulz

작곡·연출 | Zbigniew Rudziński

지휘 | Piotr Borkowski

기획·제작 | 신갑순

Jakob Baritone 손성규	Draga M. Sop. 안현경
Adela Magda Soprano 이혜정	Magda Adela Soprano 이명림
Eddi Tenor 김달진	Polka Soprano 유진아
Paulina Soprano 채은희	Luccheni Tenor 이상훈
Vin. 1 정철호	Vin. 2 김대환
Vla. 조주연	Cello 이숙정
Flute 김희숙	Clarinet 뽕문호
Percussion 1 이강구	Percussion 2 신봉주
합창단장 유철우	소프라노 조이연
소프라노 김기향	테너 이재형

2001. 6. 9(토) 오후 7시 장소: LG 아트센터

후원 || 朝鮮日報社 2001. 7. 1(일) 오후 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공연문의: 삶과꿈 싱어즈 (02)318-1726 / 도서출판 삶과꿈 (02)756-0109 > 지정예매처: LG아트센터 (02)2005-0114, www.lgart.com / 티켓링크 (02)1588-7890, www.ticketlink.co.kr